



# 時計塔

SIGETOP



2013년 10월 20일 발행

서울대학교醫科大學美洲同窓會 發行

제40권 4호

P.O.Box 631, Port Washington, NY 11050  
Tel: (516) 365-5500 Fax: (516) 365-5501  
snucmaa@yahoo.com www.snucmaa.us

발행인: 金晟煥  
편집인: 金炳哲

편집위원: 徐亮 李元澤  
徐仁錫

자문위원: 盧鎔冕 李熙景  
許善行



## 제31차 학술대회에 초대합니다

동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4년 5월 16일부터 5월 23일까지 개최되는 31st Annual Convention & Scientific Meeting 등록 변경사항에 대하여 알려 드리겠습니다.

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하여 Convention Registration Fee를 미주동문은 \$300, 한국에서 오시는 동문들은 \$200로 정하고 항만 교통비 포함 기타 경비를 모두 합친 \$200은 동창회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Celebrate 배는 5.5 Star급의 가장 좋은 배로 단체 Meeting 할 방 2개를 CME & Non CME로 Cruise 내내 쓰게 되는 관계로 개별적으로 참여 할 때 보다 여행비가 약간 높아졌습니다. 이

점 동문 여러분들의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정이 바쁘신 분은 여행 4일 째에 알래스카의 수도인 Juneau에서 하선하셔도 됩니다.

동창회에서는 각 기별 선상 동기회를 갖는 것도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같은 모교를 거친 선 후배와 동거동락을 한 동기들의 알콩달콩한 만남의 축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여행을 같이 떠나기 위한 등록마감일(9월 10일)은 지났어도 본보 2페이지의 Revised 여행신청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아직 등록하실 수 있으니 내년 Alaska 학술대회에서의 기쁜 만남을 기대합니다.

미주동창회 회장 김성환 드림



# 31st Annual Convention and Scientific Meeting

**크루즈 일정:**  
**2014년**  
**5월 16일(금)**  
**5월 23일(금)**  
**7박 8일**

1일차 2014년 5월 16일(금): 시애틀, 워싱턴주 오후 5시 출발  
 2일차 2014년 5월 17일(토): 해상  
 3일차 2014년 5월 18일(일): 케치칸, 알래스카에 오전 7시 도착, 오후 4시 출발 (정박)  
 4일차 2014년 5월 19일(월): 트레이시암피오르드, 알래스카에 오전 6시 도착 저녁 10시 출발 (해상)  
 2014년 5월 19일(월): 주노, 알래스카에 오후 1시30분 도착, 저녁 10시 출발 (정박)  
 5일차 2014년 5월 20일(화): 스케그웨이, 알래스카에 오전 7시 도착 오후 6시 출발 (정박)  
 2014년 5월 20일(화): 알래스카 인사이드 패시지에 오후 4시30분 도착 저녁 10시30분 출발 (해상)  
 6일차 2014년 5월 21일(수): 해상  
 7일차 2014년 5월 22일(목): 빅토리아, 브리티시콜롬비아주에 오후 6시 도착 저녁 11시59분 출발 (정박)  
 8일차 2014년 5월 23일(금): 시애틀, 워싱턴주 오전 7시 도착

## Group #3971486

### 7 Night Alaska Sawyer Glacier Cruise Registration By Celebrity - Solstice

\* 유효한 여권내용과 동일하게 기재 하셔야 합니다.

|               |   |        |
|---------------|---|--------|
| Group Name    | 31st SNUCMAA Annual Convention and Scientific Meeting |        |
| Class Year    | Gender :  |        |
| Name (1)      |   |        |
| Address       |   |        |
| E-mail        |   |        |
| Telephone     | (H)   | (Cell) |
| Date of Birth |   |        |
| Passport      | Number:   |        |
|               | Nationally:   |        |
|               | Date of Issue   |        |
|               | Date of Expiry:                                       |        |

**동반자**

|               |                 |  |
|---------------|-----------------|--|
| Name (2)      | Gender:         |  |
| Date of Birth |                 |  |
| Passport      | Number:         |  |
|               | Nationally:     |  |
|               | Date of Issue   |  |
|               | Date of Expiry: |  |

\* Credit Card Number: \_\_\_\_\_  
 \* Expiration Date: \_\_\_\_\_ \* CID (3/4 digit code on Card) : \_\_\_\_\_  
 \* Card Holder Name: \_\_\_\_\_  
 \* Billing Address: \_\_\_\_\_  
 \* Travel Protection Plan : \_\_\_\_\_ Yes (or) \_\_\_\_\_ No

\* Deposit(예약금): 1인당 \$250 - 2인 \$500을 카드 혹은 Check를 여행사로 보내 주십시오.  
 \* Direct Deposit(구좌번호 입금)으로 결제 가능 합니다.  
 \* Final Payment (잔액): 항해 90일전 2014년 2월 15일까지 특별한 사항이 없는한 같은 Credit Card로 자동 결제 혹은 수표를 2014년 2월 15일까지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Deposit(예약금)은 Non-Refundable이고 항해 90일전 2014년 2월 15일부터는 Final Payment(잔액금) 또한 Payment in full, Non-Refundable 입니다.  
 \* 여행보험 Basic Plan (Inside \$59/PP, Ocean View & Balcony \$89/PP): Basic이외는 별도로 문의해 주십시오.  
 \* Special Request:  
 \* 하선 당일 항구에서 공항까지의 Group 교통편, 사진 CD & DVD 제작 및 우송비, 행사내 여흥비 등은 동창회에서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CSM 참가비 \$300: 동창회로 보내 주십시오.  
 \* Group Dining: 6:00PM (매일 저녁 그룹으로 모여서 지정된 테이블에서 만찬이 있습니다.)

**선실 금액(1인):**

09 - Inside Stateroom \$979 + \$200.26 (Taxes & Fees) = \$1,179.26  
 08 - Ocean View \$1,099 + \$200.26 (Taxes & Fees) = \$1,299.26  
 2C - Balcony \$1,259 + \$200.26 (Taxes & Fees) = \$1,459.26  
 2B - Balcony \$1,329 + \$200.26 (Taxes & Fees) = \$1,529.26

\* Gap Points: 그룹 6 Points는 각 선실 당 \$75 USD Onboard Credit을 드립니다.  
 \* 우선순위 선실 선택: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예약을 빨리 하실수록 원하시는 선실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Captain's Club Member ID (if you have one):

1. \_\_\_\_\_ 2. \_\_\_\_\_

\* Gateway (Home City Airport): \_\_\_\_\_

**SunCoast Travel Travel Cruise Convention.com**

Travel Agent: Jenny Chun, KHM Travel Group Inc.  
 Search Website: www.TravelCruiseConvention.com  
 E-mail: Jenny@TravelCruiseConvention.com  
 P/e-mail: Jchun7@gmail.com

Tel: 813-667-1008, Cell: 215-260-5041, Fax: 207-537-3145

# 제1차 이사회 초록

일시: 2013년 9월 7일 오후 4시(서부-LA), 오후 7시(동부-NJ)  
장소: 서부 - LA, JJ Grand Hotel / 동부 - NJ, Double Tree Hilton Hotel  
서부 참석자:

김태웅(63) 함동수(66) 이원택(71)  
김성환(71) 김일영(71) 고용규(73)  
전경배(75) 최광휘(76) 차민영(82)  
안상훈(94)



동부 참석자:

노용면(55) 이만택(58) 김병석(59)  
이희경(61) 정정수(62) 한기현(63)  
최준희(64) 강창홍(71) 서인석(73)  
한민우(75) 허원재(02)



Proxy:

채규철(59) 송영두(62) 손영진(62)  
추재욱(63) 이흥빈(63) 허선행(64)  
권정덕(64) 최순재(66) 이명희(66)  
최영자(66) 조영갑(70) 이성춘(70)  
강유규(71) 조세진(71) 박진국(71)  
이창우(71) 오용호(72) 심완섭(73)  
문대욱(73) 나두섭(73) 김동훈(77)  
백승원(79) 이영인(86)

1. 성원 점검 후 김성환 회장이 개회를 선언하고 각 참가자를 LA지역은 김성환 회장, 동부 지역은 서인석 차기 회장의 소개가 있었음.
2. 2012-2013 제2차 이사회 초록을 수정 없이 동의와 재청을 통하여 만장일치로 통과 시킴.
3. 회장 보고: 내년 5월 16일에 시작하는 제31차 Convention & Scientific Meeting에 많은 참가와 CME, Non-CME Program에 참여를 부탁하고 특히 62년 졸업 동문들이 많이 등록하는데에 노력을 하고 계시는 정정수(62) 이사에게 감사의 뜻을 전함.
  - 10 to 12 CME credit을 만들려면 20명 이상의 Topics & Speakers가 필요하므로 Convention에 참가하는 동문들중 많은 자천 및 타천이 요구되고 Scientific Chair 강유규 위원장이나 회장에게 연락해 주기를 요청함.
  - LA지역에서 CME Joint Sponsorship을 찾지 못하면 State of Washington에 있는 동문을 통해 Sponsor를 찾아야 할 것을 제안함.
  - 2014년 7월에 시계탑 발간 40주년 기념행사 및 시계탑 제5집 문집 발간 준비와 한국의 전체 동창회의 회원 명부 발행이 있으므로 미주동창회 회원명부는 차기 서인석 회장 때 끝낼 예정임.
4. 재무보고: 고용규 재무의 불참으로 김일영 전회장 때의 재무인 김성환 현회장이 지난 회기 간략한 보고가 있었고 회계사의 정리가 끝나는 대로 시계탑 지면을 통해 보고될 것임.

## Reports from Committees:

Scholarship committee (서인석 위원장): 2013년도 장학생 선발요강 공고가 LA와 NY지역 한국일보, 시계탑, 미주 동창회 Web Site(snuccmaa.us)를 통해 광고가 됐고 9월 13일 마감 후에 장학위원의 심사를 거쳐 7명 이하(2 for Dr. Taewoong Kim Scholarship and 5 or less for SNUCCMAA of NA Scholarship) 선발하고 시상식은 동부는 2013년 11월 2일 GNYC Annual Ball 때, 서부는 추후 발표 예정임.

Fund Management committee(이명희 위원장): 이명희 위원장을 대신하여 Financial Advisor John Baek, CFP가 Scholarship Fund 상황을 보고함.

Publication Committee (김병석 위원장 - 서면보고): 2014년 7월에 맞이하는 시계탑 창간 40주년 기념행사와 시계탑 문집 제5호 출판기념행사를 내년 학술대회장에서 갖기로 함.

Research and Fellowship Committee (조세진 위원장 - 서면보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미주동창회는 2011년과 2012년 연속적으로 SNUCCMAA of Na의 Research and Fellowship Committee에서 심사해서 추천받은 미주 동문이 본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누렸고 2013년에도 12월 중순경에 서울에서 열리는 함춘 송년회에 있을 시상식이 있을 예정이어서 제17회 함춘학술상 준비를 계속하고 있음.

Silver Project committee (박진국 위원장): 동문들중 많은 분들이 은퇴함으로 동기들끼리 모임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동기끼리의 모임이 전체 Meeting과 연결을 원하고 동문들의 동정, 각 동기들의 계획, 근황 등을 시계탑에 알리면 많은 동문들의 참여를 끌어낼 수 있을 것임.

## Non-CME 보고 (이원택 위원장)

- 7박8일을 한 배에서 같이 시간을 지내야 하기 때문에 Non-CME에 해당된 시간이 전년에 비해 2배내지 3배로 늘어남으로 해서 동문들중 감사님이 20명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 시계탑을 통해 강사를 초청할 예정임. 철학 영화 역사 등등의 소재에 관심 있는 동문들의 참석 요망함. 하루 밤을 영화 감상의 밤으로 정해 한 두 편 정도의 영화감상을 계획중임. 영화에 깊은 지식이 있거나 재미있는 Topic이 있는 동문은 이원택 동문, 윤기철 동문 혹은 회장에게 연락하기를 바람.

- 시계탑 40주년 출판 기념회를 7박8일중 하루를 정해 현재 기념회 Member가 책임을 지고 진행할 예정으로 서인석 차기회장, 서량, 김병석 위원장의 참여를 요청함.

- Cruise 자체 내에서 프로그램이 많이 있기 때문에 Non-CME의 비중이 생각만큼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아도 될것 이라는 의견도 있었음.

## New Business

- 서울의대 미주동창회의 2014년도 회원명부 자료 수집하여 미주동창회 명단을 조사 중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입학했지만 졸업하지 않은 분들은 준회원 (Associate Member)으로 분류할 필요성과 동창회원의 의사 자녀들과 서울의과대학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또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미주에 와서 의사가 된 분들을 발행될 미주 동창회원명부에 어떻게 분류하고 포함할지 By Law Committee 노용면 위원장께 자문을 구하기로 함.

- Committee Expense Requisition, 각 Chapter의 Revenue Sharing Request는 회비를 낸 회원당 \$15정도에서 서면 요청이 가급적이면 해당 회기(7월1일 - 6월30일)내에 해 주기를 회장이 부탁함.

서부와 동부에서 참석한 이사들의 기념촬영 후 회의를 마침.  
총무 최광휘(76) 보고

## 김병석(59) 동문 호스피스와 정신건강 발간



김병석(59) 동문과 부인 임경자 여사의 공저로 '호스피스와 정신건강' (하나의학사, 275쪽)을 발간했다. 김동문은 발간하게 된 동기를 책의 서문에 다음과 같이 밝혔다.

“호스피스 완화의료는 불치병의 말기 환자들이 마지막까지 편안하게 지내며 존귀한 죽음을 맞도록 도와주는 의료 체계로서 갑작스러운 사고사가 아닌 사람들이 갖게 될 죽음의 준비 즉 새로운 죽음 문화이다. 그동안 여러 호스피스 케이스를 접하며 저자들은 일상 생활에서 죽음 교육이 필요하며 인생의 마지막 단계인 호스피스 자신의 인생관에 맞게 마무리 할 수 있어야 함을 깨달았다.”

김동문은 정신과 전문의 정신분석학자로, 부인 임경자 여사는 시인, 수필가로 등단했으며 상담 심리학, 공인 라이프 코우치, 공인 최면치료, 공인 NLP로 활동하고 있다.

## 김철규(64) 동문 세 번째 수필집 발간



서울에서 소아과,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활동하고 있는 김철규(64)동문이 세 번째 수필집 '살며 생각하며' (수필춘추사, 278쪽)을 발간했다.

한국문인협회 회원으로 수필춘추 송암문학상 대상을 수상한 김동문은 현재 노숙자 자선병원인 요셉의원에서 8년째 봉사중이다. 그간의 저서로서는 수필집 '새싹은 돌아오고' '나의 삶의 길' 그리고 공저로 '흘러서 그침없는' '언제나 푸르려는' '배움의 동산' '주고싶은 마음' 등이 있다.

## 정희현(72) 동문 6번째 개인전시회



영감에 의한 착상은 시의 정수와 핵심에서 그리고 나의 언어에 대한 사랑에서 오는 것이다. 추상화와 시(어)는 같거나 유사한 구도(Composition)와, 변형성 내지 적대성(Variation)과, 시공(Space)과, 어조의 명도와 그 긴장(Tone)을 복잡한 복합 언어의 기본적이며 불가결한 본질적 요소를 사용한다.

시어 사용의 단순화가 가져다 주는 은유(Metaphor)와 암시(Allusion)는 감동을 주며 역동적이다. 나의 욕심은 내 Canvas에 침묵의 시를 쓰려는 것이다. 내 작품의 표제들은 시인 E. E. Cummings와 Ted Hughes와 Pablo Neruda의 시에서 따온 시어들이다.

오는 10월 2일부터 26일(화-토 11:30-6:00)까지 뉴욕 Chelsea의 Phoenix Gallery (210 Eleventh Ave. #902, NY, NY 10001 Tel. 212-226-8711)에서 여섯번째 전시회가 열린다.

## 서울대학교미주재단 보고

강창홍(71) 통증연구지원금이 의대 마취통증의학과에 수여 되었습니다. 연구제목: Optimal administration of oxycodone for postoperative pain after abdominal / Surgery in Korea: a randomized double blind study

연구자: 전윤석 교수(PI) / 공동연구자: 이지원간사, 민정진간사, 홍덕만 조교수, 김태경 Fellow 등에 연구지원금 7,500 달러가 지원 되었으며 다음 7,500 달러는 중간 보고 후 지불 됩니다.

이흥표(64) 순환기내과연구 및 교육기금: 내년부터 매년 20,000 달러가 연구-교육지원금으로 순환기내과에 지불하게 됩니다. 또한 내년 졸업 5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연구금 100,000 달러가 지급하게 됩니다. 두 지원금은 Grant application을 받은 후 순환기내과에 보내게 됩니다. - 이사장 이만택(58) 보고

## 편집위원회 회의초록

이번 10월에 발간될 시계탑 원고의 편집모임을 9월 18일 수요일 저녁 6시에 뉴욕 후러시에 있는 삼원각에서 가졌다. 편집위원 전원이 참석했으며 들어온 원고 교정을 마치고 몇가지 현안을 토의했다.

첫째: 시계탑 창간 40주년기념행사 건으로 먼저 토의된 대로 기념만찬회를 갖기로 동의가 되었다. 동창회 이사회에서 합의되었던 내년 10월의 학술대회 때가 아닌 뉴욕 근처에서 갖기로 다수가결로 결의 했다.

장소는 아마도 서울의대 골프대회가 개최되는 곳으로 2014년 7월이나 8월경이 될 것이며 신입 동창회장단에서 주관하기로 하였다.

둘째: 기념문집 5호는 내년 7월까지 완성하여 발간하기로 했다.

셋째: 문집발간을 위한 비용충당을 위해 앞으로 계속 광고계제를 위한 알림 광고가 나갈 것이다. 광고는 시계탑에 내는 광고와 문집에 내는 광고이며 광고료는 출판위원장이 출판사와 상의해서 결정하고 임원들의 승낙을 받기로 했다.

넷째: 10년 동안 지낸 김병석 출판위원장은 40주년 기념행사를 마치는 대로 사임하기로 사의를 포함으로써 위원들이 후임자를 찾기 시작하기로 했다.

이번 모임은 다함께 추석을 축하하고 9시경에 끝났다.

## 시계탑, 시계탑 문집 5호 광고 모집

매 분기마다 40년째 발행되고 있는 미주동문들의 소식지 '시계탑' 과 내년 7월에 발간 예정인 시계탑 발간 40주년기념 '시계탑 문집' 에 게재할 광고를 심기로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했다.

광고 내용은 시계탑의 편집방향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크기는 전면, 반면 사분의 일면과 하단 광고로 정할 예정이며 그에 대한 게재료는 추후 편집위원회에서 의논 후 결정하기로 했다.

재정적인 도움을 줄 동문들의 많은 관심과 후원을 기대한다.

# Trauma Center

곽 홍(52, 메릴랜드)



2009년 4월부터 3일 전 미국에 돌아올 때까지 4년 반을 부산 해운대 인제대학교 백병원에서 본인이 건설한 한국 최초의 Trauma Center 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저는 1989년부터 부산에 Trauma Center를 완공할 때까지 한국에 일 년에 두 번씩 가서 한국의 정치지도자와 많은 의과 의사들과 Trauma Center System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면서 한국의 중상 환자 치료시스템 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여 왔습니다. 다행히 지난 2009년 인제대학교 백병원 이사장 백낙환 선생께서 본인을 초대하여 신축하고 있는 해운대 병원에 Trauma Center를 열게 하라고 하여 바로 병원의 각과 외과의 마취의, 간호사 16명을 메릴랜드 의대의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Trauma Center에 단기 연수로 초대하여 본인도 연수한 후에 부산에 왔습니다. 그리하여 한국에서 최초로 소규모의 Trauma Center를 열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나 자신도 기뻐하면서 열심히 미국의 Trauma Center와 같은 시스템을 가지고 중상환자치료를 시작하고 현재까지 자랑할 만한 훌륭한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1999년 차용봉 보건복지부장관께서 본인이 추천한 응급의료정책을 국회에서 2000년에 통과되었습니다. 또 김홍신 국회의원과 김태홍 의원의 노력으로 본인이 추천한 응급의료기금의 설치가 국회에서 통과, 즉 도로교통법칙금 일 년간 전액의 20%가 기금으로 쓰게 되는 것이 2002년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그 결과 매년 550억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국의 Trauma Care System의 구축을 설득해온 이유는 한국에서 중상으로 사망하는 수가 심장혈관 병과 암질환 다음으로 많은 뿐만 아니라 중상환자의 사망률이 선진국보다 3배나 더 많기 때문입니다. 이는 한국은 Trauma Care System이 없기 때문에 억울하게 죽는 사람이 선진국에 비해 3배나 많은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통계에 의하면 중상환자의 예방할 수 있는 사망률이 약 36%인데 모든 선진국의 비율이 약 10%이고, 일본은 11.2%, 미국의 Trauma Center는 5~6% 입니다.

중상을 당해 24시간 내에 100명이 사망한다면 56명은 1시간 내, 20명은 4시간 내, 15명은 7시간 내, 10명은 12시간 내에 사망한다고 합니다. Maryland Shock Trauma Center를 개칭하신 Dr. R. Adams Cewley 박사는 "황급의 한 시간"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중상환자는 다친 시간부터 수술대에 올라갈 때까지 한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역설하였습니다.

중상환자의 사인을 보면 치료가 지연이 52.9%, 임상적 오진이 21.6%, 진단 누락이 11.8%, 치료방법상 오류 7.8% 그리고 기타는 5.9%입니다.

상기한대로 환자수송이 늦어지고 외과의사의 부재로 진단과 치료가 늦어지는 것이 제일 큰 문제점입니다. 근래 수년간에 한국정부와 외과계에서 적극적으로 Trauma Care System 설치에 많은 관심과 Trauma Surgery를 중요시 하고 있고 멀지않은 장래에 한국도 선진국과 같은 Trauma Care System이 될 것입니다.

한국에는 총상이 많이 없어서 응급환자 치료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백병원에서 선출된 Trauma Center 젊은 외과인들이 미국 Trauma Center의 시스템을 따라 열심히 근무하고 있어 과거 4년 전에 비해 사망자 없는 Trauma Care Treatment System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부산 백병원의 중요 시스템 발전을 보고 미국에 돌아와서 한국의 발전을 칭찬하고 만족스럽게 조국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 알파벳 이야기

서 량(69, 대뉴욕)

alphabet은 16세기말경 A와 B의 희랍어 발음 alpha와 beta가 합쳐진 후 말미의 'a'가 생략된 말이다. 이것은 마치 속어로 우리의 글자를 '가나다라'라 부르는 것과 크게 다른없는 이치다.

인류가 처음으로 글자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기원 전 3,4천 년, 그러나 지금부터 5,6천 년 전 이집트의 상형문자(象形文字) 시절이란다. 서거정(1420~1488)이 동국통감(東國通鑑)에서 주장했듯이 기원 전 2333년에 건립된 단군왕검의 고조선 시절보다 열두 천여 년 전 일이다. 그 비슷한 시기에 중국인들은 거북이의 배딱지에 갑골문자(甲骨文)를 새겨 넣었다. 종이가 없던 시대라 중국인들이 문자를 발명 한답시고 애꾸지 거북이의 배를 칠판 삼아 그림 그리기를 연습했던 것이 아닌가 싶다.

이집트 상형문자가 기원 전 전 년 경 지중해 연안의 페니키안(Phoenician) 문명으로 넘어갔다가 고대 희랍어와 라틴어로 변한 것이 영어 알파벳의 시초다. 그리고 인류역사상 가장 과학적이라 칭송 받는 한글을 1443년에 머리가 엄청나게 좋은 우리 세종대왕이 창시하였다.

페니키안 알파벳은 표음문자(表音文字)인 한글과 달리 그림을 보는 기분이 은근히 든다. 지중해 연안이건 넓은 중국 땅이건 옛날 사람들의 의사소통은 청각보다 시각적 정보에 의존했던 것이다.

페니키안 문자의 A는 소(牛: ox)라는 뜻이었고 지금도 잘 보면 뿔 달린 소로 보인다. B는 생김새대로 집을(house) 의미했고 C는 당시 사냥할 때 쓰던 막대기(throwstick)를 닮았다. 생김새가 나타 모습이라는 학설도 거론됐지만 C는 이집트 벽화에 건장한 사내가 손에 쥐고 휘두르는 약간 구부정

한 그 잘 알려진 막대기 모습 그대로다.

그들의 알파벳에는 소가 집보다 먼저 등장한다. 설마 소를 방안에서 키웠을 리가 없었기에 텍스트 중 맨 첫 번째 관심사는 집 밖에 우두커니 서있는 소였으며 그 다음이 내부적 여건이 풍성한 집이었다. 천자문 시작에서도 하늘 천(天), 따 지(地)같이 머니먼 하늘이 사람이 밭을 디디고 선 땅을 앞지른다. 문자의 역할이 한 인간의 독백을 위한 것이 아니라 타자(他者)와의 교류를 위한 도구였으니 이것은 그야말로 뻥뻥 뻥뻥이다.

한자의 내 천(川)자가 냇물을 뜻하듯 얼른 보기에도 모양이 그럴 듯한 E는 페니키아 사람들에게 창문(window)을 뜻했다. 일설에 의하면 애초에 E는 '기쁨'이라는 뜻이었다 하니 환희의 소재를 창문 밖에 두었던 고대인들의 사고방식이 훗날 드러난 셈이다. 가수 조용필의 가창력이 철철 넘치는 그리움의 표적은 집안의 여자가 아닌 '창 밖의 여자' 였던 것을 당신은 기억하는지.

K는 무언가 잡으려 하는 모양의 손(hand)을 의미했다. 그것은 무엇을 움켜쥐려 하는 서구적 공격성을 시사한다. king(왕), knight(기사), kick(발로 차다), kill(죽이다), 그리고 저 위대한 인간의 두뇌활동이 출발하는 know(알다) 같은 단어들이 다 k로 시작된다. 우리 막강한 'Korea'도 k 자 돌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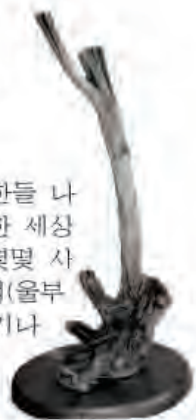
페니키안 알파벳은 8세기경 아테네와 로마를 거쳐서 영어 텍스트의 원조가 됐다. 그리고 장장 반만 년이 지난 작금의 알파벳 또한 한글처럼 완벽한 표음문자로 굳건하다.

그렇다, 현대처럼 바쁜 세상에 상형문자나 다름없는 표의문자(表意文字)를 쓰면서 글자 하나하나를 그림 그리듯 기록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표음문자 만세! 시각의 시대가 거(去)하고 청각의 시대가 래(來)했도다. 뭐? 근데 꼭 그런 건 아니라고? 독자가 텍스트를 읽는 일은 오로지 시각적인 활동이라고?

- 뉴욕중앙일보 2013년 6월 19일 서량 컬럼 <잠망경>으로 게재

# Help! 부목의 영상 A Driftwood and Reflection

정 태(62, 미시간)



막내아들이 병원에 입원하여 있어 이곳 시카고 큰 아들 집에 들렀다. 병원 방문 후 막내 손녀와 딸 그리고 아내와 함께 미시간 호숫가를 거닐며 호반 사장에 밀물 썰물에 밀려 놓여 있던 부목을 건져들고 집에 와 건조시켜 정성껏 손보고 창가에 놓아 보았더니 그 모양새(영상)가 꼭 여행하는 세 사람 그중 한 사람이 병들어 들어 누운 자를 간호하는 듯, 또 한 사람은 손을 길게 공중에 뻗어 도움을 청하는 듯 외치는 것을 상상하게 하는 것을 어찌 할 수 없었다. 내 지금 심상이 그러해서 인지 그 부목이 창가에 흰 벽을 배경으로 하고 우뚝서 나타내는 영상이 참으로 심란한 내 마음을 이리저리 만져주며 위안이라도 하는 것 같았다.

드러누운 자를 무릎 꿇고 간호하는 듯 한 영상, 그 뒤에 우뚝 온몸을 으스러가며 죽 뻗은 팔을 허공에 저어 가며 '도와주세요!' 목 터져라 소리치는 것 같은 ...

'도와주세요!'

이 지금 내 곁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생각하니 그 부목의 영상이 몹시도 마음을 설렁하게 한다. 예수의 은혜를 받고, 붓다의 자애로

운 마음을 가졌다 한들 나 살기 바쁜 이 살벌한 세상에 내 몸부짓음에 몇몇 사람이 머리 한번 돌려(올부짓음에) 응하여 주거나 할까?

헌데 와중에 문안 전화 한 두 번 해

주는 이(친구)가 곁에 있어 마음을 편안하게 가질 수 있었다. 무위를 절실히 더 느끼게 하며, 허기야 위한다는 생각을 갖고 하는 일이 뭐 그리 위함이 될까만 ... 하지만 사람이기에 넘어졌을 때 누가 곁에 와 일으켜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이 우리 단순한 마음을 한 어리석은 자들의 마음가짐이 아닐까.

단순하기에 쉬이 들뜨게 되고 쉬이 송곳해 지고 믿어지고 그 순수 마음가짐으로 해서 쉽게 행(行)하다 쉽게 해를 받기도 하는 것이 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닐까. 세상이 단순한 마음 한 사람들만이 사는 것이 아니니까 더 더욱 ...

그 순수한 마음가짐을 하기 위해 못 사람들은 속세를 버리고 심심산골 인적 없는 곳에 장송 일들의 바람에 날리는 흙에 시를 읊고 노래 부르며 세

속의 모든 업을 깨끗이(?) 씻으려 밤낮 애쓰다 들었지만 그렇지 못한 속세인 들은 과연 그 고통과 아픔 또 슬픔을 어찌 다루었을까? 이태백이 같이 술과 달 놀이로 ...

이 세상에 업(죄-원죄를 빼고) 없이 티 하나 붙지 않은 깨끗하다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만 속 될 때마다, 눈 깜빡일 때마다 지은 죄(업)를 갚을 길이 어디 있을까 하고 한번쯤은 생각해 보는 것이 한 삶을 사는 이의 기본 처사가 아닐까. 꼭 교회나 법당에 가서 속죄해야만 하는지 ...

혼자 지은 죄가 풀이 손잡았다 과중되기도 하지만 덜해지기도 한다지요.

홀로 가는 길, 그렇게 길어야 하는 길이 있고, 또 누구와 함께하는 길, 함께 하려는 길... 단지 그 길이 두 갈래 길이 아니기를 바랄 뿐이다. 해야 하는 것, 하려는 것, 하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 이렇게 머리가 복잡해지면 일분 일 초 숨 쉬는 삶의 순간순간이 혼탁하게 되기 마련이겠지. 숨이 혼탁해지면 숨으로 이루어지는 생각이 혼탁해지고 그렇게 되면 동서남북이 헛갈리게 되겠지! 그런 헛갈림에 길잡이 손터 없이 구사일생 옳은 길에 드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눈앞에 놓인 강을 도강하기 전에 그 강물의 흐름을 알길 없듯이 ...

저 적막한 평원에서 방황하다 '도와주세요!' 목청 돋구어 외쳐야 해야 리도 없이 평원에 아무 흔적 없이 흩어져 버릴 테지. 지금 한 인간의 삶이 막막한 평원에서 방황하는 듯 한 느낌을 주는 것은 또 왜서일까.

그래도 부목의 영상같이 홀로가 아니고 셋이니 - 나와 너 그리고 그 사람. - 그렇게 셋이 되니 그리 외롭지 않고 홀로 있음을 덜 느끼리라.

허공에 높이 손을 치켜들고 가슴 터지게 'Help' 하며 외치지 않아도 되겠지!

'도와주세요!' 살벌하고 적막한 평원에서의 외침은 참으로 가슴 저리게 하는 외침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나 곁에 함께 하는 사람이 저 적막한 평원에 저들 셋 뿐이니 더 그러하다.

그 셋 중 하나라도 "나 몰라, 내가 살아야지" 하며 드러누운 이와 그를 간호하는 들을 뒤에 두고 막막한 평원에 혼자할 냉혹한 생각을 하고 그들 둘을 뒤에 두고 저 혼자 저 막막한 평원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을 염려하기라도 하고 뒤도 안돌아보고 떠날 냉혹한 생각을 할 수 있을까?

하니 함께 하다 셋이 같이 마지막 될 때까지 서로 손을 잡고 곁에 있어 주는 따스한 온기, 잡은 손의 따스함을 느껴가며 끌며 당기며 기대가며 마지막 널 섬 할 때까지 견디어 싸워야 하는 것이 그들 셋의 마지막 남은 가슴에 품어야 하는 마음가짐이고 처사가 아닐까.

그 처지에 감히 "나 혼자" 하는 어처구니없는 마음가짐이 있을쏘냐. "도와주세요!" 하는 애절한 외침은 저 막막한 평원에서 메아리 없이 허공에 흩어지기만 하는데 또 초조 불안 공포에 쌓인 심정의 울렁임이 한 초 한 초 숨을 조이며 더해 가는데... 'Help!'

# 인간문화재 노재욱의 삶을 회고하며

강수상(53, 시카고)

## 가을이 깊어 가는 Acadia 공원의 해변

화창한 늦가을 어느 오후의 해변에 서서  
 나는 서늘한 바람이 옷소매를 스치며 만드는 / 잔잔한 물결을 본다.  
 한낮을 오래 전에 지난 태양은 / 바다 저 멀리서 비쳐오고  
 평화롭게 퍼져가는 파도는 / 햇빛으로 눈부시다.  
 태고 적부터 파도에 씻겨온 암벽에는 / 어느새 그늘이 붙어오며  
 바람에 흔들리는 길게 자란 풀들은 / 쓸쓸하게 아름답다.  
 철새들은 남쪽으로 떠난 지 오래 되었고  
 한여름 활기로 봄비던 해변의 상가들은 / 한해를 접고 떠나기에 바쁘다.  
 대서양 북단에 자리 잡은 / Main의 Acadia 국립공원에  
 가을은 조용히 깊어 가고 / 나는 신비로운 자연의 정취에 잠긴다.



남편의 일 주기에 추모사를 부탁하는 신은임 의사님의 전화를 받고 감회가 깊었습니다. 작고한지가 나한테는 꼭 어제 같기 만 한데 짝을 잃은 Dr. Shin의 그 긴 밤을 365일이나 되풀이하며 이 날을 맞는 심정은 어떻게 세상 삶의 허망함을 절감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누구보다도 훌륭하고 아름다운 한 생애 병리학 전문의님의 지난날을

를 펼친 나의 지기이고 여러분의 지기인 노재욱 병리학 전문의님의 지난날을 더듬어 보는데 뜻이 크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누구나 이 세상에 났다면 언젠가는 삶의 종말을 맞이하는 것은 자연의 섭리이고 그 삶이 50년이건 100년이건 우주의 생성 태양계의 탄생 우리가 사는 지구가 겪어온 역사를 생각하면 1억분의 1도 안 되는 찰나라고 생각합니다. 며칠을 사는 풀벌레나 몇 년을 사는 소 동물들에 비하면 그래도 긴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 지구가 생긴 이래 그 많은 빙하시대를 겪으며 수많은 생명체가 생기고 멸종되었는데 인간으로 태어나 생각하고 친교하고 봉사하고 사랑하며 보람 있게 살았다는 것 그 가운데서도 출중한 인품과 재능을 타고나 많은 사람들에게 훌륭한 공헌을 한 그의 생애는 크게 축복 받은 역사라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고 여기서 우리와 맺혀진 아름다운 관계를 더듬어 보는 시간을 가져 보려 합니다.

여기에 계시는 한 분 한 분이 Dr. 노께서 의료인이라는 전문성을 뛰어 넘어 자연을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한 특출한 그의 발자취를 익히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는 Naturalist -Nature lover로서 자연 탐색 정원예술 거기에 뒤따르는 사진예술 시문학 공예 (Woodworking) IT Technology 식물학 심지어 Fermentation science까지 이루 해야될 수 없는 방대한 지식과 기술과 이를 추궁하는 열정을 가진 "인간문화재" 의 진수이였습니다. 그러나 이 일련의 사실들만으로 인간 노재욱을 논하는데 여러분들은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참 모습은 그의 인간성 인간에 생명의 찬미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항상 미소 짓는 그의 모습, 서울 사람을 아내로 가진 사람치고 경상도 억양이 유별난 그의 목소리로 당신을 그의 신뢰 넘치는 따뜻한 우정에 젖게 하는 분위기를 한번 가슴으로 느껴 보십시오. 이런 품격을 가진 Philanthropist를 만나게 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아모썬록 그가 심혈을 기울이던 Botanic Garden Project가 머지않은 장래에 결실을 보게 되기를 염원할 뿐입니다.

나는 개인적으로도 그와의 교우의 역사는 각별합니다. 1975년 한인의사회를 맡았을 때 회보 창간호를 어려운 여건에서 훌륭하게 나오게 했고 다들 Golf를 시작한 80년대에 아직도 낙오자로 있는 나에게 자기가 여분으로 가진 set를 보낸 배려, 장학 사업을 시작한 이래 빠지지 않고 Audiovisual presentation을 자진해서 해준 수고 그리고 An Evening with Friends에 두 번이나 사진 전시회를 한 일을 위시해서 이루 해야될 수 없는 그의 보살핌에 값을 가회도 주지 않고 먼저 가버린 것이 아쉽지만 합니다.

이번에도 그는 나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전화를 받고 곧 추모사의 글을 씁니다만 무언가 삶의 진수를 찾아보는데 미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열흘 동안 여행을 하면서 생각하고 생각해 보았지만 이제까지 번민해 오던 생로병사라는 인간의 속성을 뛰어넘어 우리네 숙명을 다른 새로운 차원의 모습에서 찾아보고 그와 우리의 관계를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시간과 공간이라는 영역을 넘어 서지 않는 한 아무리 고뇌하고 애를 써보아도 우리가 다친 현실적인 생존의 요건을 벗어던지지 않는 한 궁극적인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려는 노력이 부질없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존재를 Biological being 즉 감각적 존재와 Metaphysical (spiritual) being 즉 관념적 존재의 Duality 안에서 이해하려하지 않는 한 삶의 수수께끼가 풀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올바른 것 같습니다. 빛이 Particle과 Wave의 양면에서 왜 보아야하는지 알 수는 없어나 어느 하나 만으로는 성립 될 수 없는 것 같이 우리의 존재도 시간적 그리고 공간적 영역 안에서 이해되는 삶은 그 제약에서 벗어 날 수가 없지만 한 편 시간과 공간에 구애되지 않고 상관도 없이 존재하는 또 하나의 모습의 삶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존재의 Duality가 납득되는 경우에만 우리가 어찌할 수 없이 얽혀 있는 그 맺힘이 풀린다는 슬기를 찾게 하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서두에 실은 시는 추모사를 준비하며 Dr. 노의 Acadia National Park 해변을 찍은 작품 속에 적힌 "An Afternoon in Acadia Park Beach"라는 시를 번역해 보았습니다. 선물로 받은 작품(사진 참조)입니다.

노재욱 동문은 시간이나 장소와는 상관없이 항상 신뢰로 찬 따뜻한 품성 속에서 기억될 것입니다.

# 김양수 종사에게 바치는 추모의 글

저는 김용명님의 가까운 친구의 한 사람으로서 애통한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그의 생애를 회고하며 그가 남긴 삶을 추모해 보려 합니다. 3월 23일 금요일에 밝아진 그의 모습을 보고 조금은 안심이 되었는데 그 다음 주 일요일에 운명하였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람의 운명은 불가항력인 것을 절감하며 그래도 유명을 달린 친구가 이룩한 훌륭하고 아름다운 일들은 우리들 가슴 속에 언제까지나 살아 있을 추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를 처음 만난 것은 1980년 Lake Geneva에서 있었던 여름 수련회에서였습니다. 그때 불과 8살이고 6살인 Tom과 Ann이 연주한 음악이 각별하게 뛰어나 많은 분들의 칭송을 받았습니다. 자녀들을 낳달리 길러내는 젊은 부부를 자랑스럽고 부럽게 생각하며 비범한 그와 친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잘 자란 아이들은 지금은 아들은 아버지의 자취를 밟아 의사가 되고 딸은 성공한 음악가 된 데에는 이들 내외의 지도력이 절대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밖으로는 성공적인 의료인으로 사회봉사를 하였을 뿐 아니라 이 나라에 원불교를 심은 선구자로 엄청난 공헌을 한 업적은 이 분야에 생소한 분들도 여기 오셔서 그 분위기를 느끼고 깨달았을 줄 압니다.

나는 그와 이웃에 살며 오래 동안 교우하며 사려 깊고 넓은 가슴을 가진 그의 인품에 매혹 되었습니다. 말이 적고 유순한 그리고 남을 편하게 해주는 자질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밑바닥에는 지조가 굳건하고 노력이야며 자기 신념을 묵묵히 밀고 나가는 인내심을 가진 불굴의 의지가 있습니다. 나 보다는 여기에 계시는 원불교 법회의 한 분 한 분이 그의 고매한 인격을 경험하셨을 줄 압니다. 나는 간장 질환이 있는 사람들의 어둡고 병색 짙은 안색을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복수가 고이고 체중이 100 파운드 가까이 까지 줄어드는데도 해맑고 깨끗한 그의 피부와 혈색은 너무나 경이로운 일이였습니다. 보통 사람들과는 달리 무엇인가 신비롭고 고매한 그의 모습은 속세를 해탈한 선인의 모습이였습니다. 격의 없게 가까운 사이였지만 그는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아무리 기동이 어렵더라도 병상에서 친구를 면접하기를 피하고 도움을 받아서라도 성심껏 벗을 대하려는 그의 배려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를 보내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죽음은 이 세상에서 어느 생명체이고 다 거쳐 가야 하는 길입니다. 불교를 탄생시킨 시달타도 원불교를 가져온 교주님도 우리 김양수 종사님 보다 짧은 삶을 살았습니다. 임종을 맞은 석가님 앞에서 울고 있는 제자에게 "슬퍼하지 마라 아난다야 네가 따른 것은 내 가르침이었다. 내가 가더라도 내 가르침은 그대로 있을 것 아니냐" 하신 말씀을 생각하며 비록 Dr. 김은 우리 곁을 떠났지만 그의 품격과의 관계에서 맺어진 인연은 Buber가 말한 새로운 모습의 존재로 시간을 초월한 살아 숨 쉬는 감회가 될 것입니다.

나의 친구 김용명님 당신과의 교우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 강수상(53, 시카고)

## 친구 9 - 추도사(追悼辭)



촉촉한 비가 하늘에서 내렸던 지난 2013년 6월 7일에 서관우 동문이 우리 곁을 떠난 것이 거의 100일 전 일입니다. 오늘은 그의 고귀한 육신의 흔적을 자연으로 되돌리는 날입니다. 이 세상에 남기고간 그의 아름다웠던 발자취를 기리기 위하여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는 특이한 인생철학과 고귀한 인품을 지녔던 사람이였습니다. 보통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의지와 인내심으로 힘들었던 오랜 투병생활을 이겨냈음을 우리는 잘 기억합니다. 그는 부드러운 목소리와 깨끗한 성품을 지닌 사람이였습니다. 모두들 부러워하는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 명문교육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그는 훌륭한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 후 미쉬간의과대학의 어려운 레지던트과정을 거쳐 진단과 치료 방사선 전문의로서 수년 전 은퇴할 때까지 볼레도 오하이오에서 명성을 날렸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대부분의 여러분들처럼 저도 그를 반세기 전 어린 학창시절에 처음 만났습니다. 늘 따뜻하고도 정의로운 말과 굳센 약수로 반겨주었던 서관우 동문께, 그리고 이런 좋은 친구와의 인연을 만들어주시고 오랜 세월 가까운 이웃으로도 같이 지낼 수 있게 하여주시는 수퍼파우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를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들! 우리는 그가 원하던 대로 지금 그의 한 줌의 육신의 흔적을 울창한 이 숲속에 잠재우려고 합니다. 밤에는 별들과 동무하고 동이 트면 아침이슬에 젖어 햇살에 반짝이는 바위들처럼 그의 영혼은 여기에 무거운 육신을 내려놓을 것입니다. 그가 믿어오던 노자-장자 동양철학사상의 흐름처럼 모든 육신은 분해되어 자연으로 되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영혼은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자유로워진 영혼은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곁에 함께 하리라 믿습니다. 하늘나라, 별나라에서 살면서 허허 웃으면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오랫동안 사랑하던 여러분들! 그의 영혼은 그가 젊은 시절 발자국을 남긴 화동언덕에, 연건동 대학로에, 군의관으로 근무하던 층고 어마마마한 눈이 많이 내리던 전방고지에, 그를 기다리던 가난하고 배고픈 환자들이 살던, 전기도 수도도 없었던 무의촌에, 그리고 그가 40여 년간 다정한 손길로 돌보아주던 모든 아픈 환자들의 가슴 속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의 영혼은 그가 끝없이 사랑하는 부인과 아드님과 따님 곁에 늘 같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도 영원히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벗이여 / 당신의 무거운 육신이어  
 이제 이곳 버지니아의 숲속에서 편안히 잠드소서.  
 사랑하는 벗이여 / 당신의 아름다운 귀한 영혼이어  
 이제 이생과 저생을 마음대로 넘나들며 영원히 자유로워지소서.

2013년 9월 14일 토요일 서운석 (68년졸업)

# Green Project Corner

## 뉴욕에서 정형외과 실습을 마치며

이수연(서울의대 본과 4학년)

내가 뉴욕에 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7년 9월, 해군사관생도 4학년으로서 순항훈련차 군함을 타고 뉴욕항구에 발을 내디딘 것이 나의 첫 번째 뉴욕방문이었다. 그 때 아이비리그라며 찾아가 본 콜롬비아 대학은 한마디로 정말 아름다웠다. 제복을 입고 콜롬비아 대학교 곳곳에서 사진을 찍으며 친구들과 대학 캠퍼스의 로망을 느꼈던 그런 추억의 장소였다. 그런데 내가 의대생이 되어 콜롬비아 대학교 병원에 실습을 하러 뉴욕에 오게 될 줄이야! 정말로 인생이란 아무도 모르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서울과 비슷하면서도 많이 다른 뉴욕과 Presbyterian hospital 정형외과 실습을 경험하면서 인생에 잊지 못할 큰 추억거리를 또 만들게 되어 정말 기쁘고 가슴이 벅차오른다.

서울의대 4학년 과정 중 하나에 속하는 '의학연구'라는 과목은 elective course로 자신이 실습하고 싶은 병원을 선택하여 4-5주간 실습하는 과정이다. 그 중 미국, 일본, 중국, 유럽, 캄보디아 등 해외로 나가는 학생들도 다수 있다. 미국은 Columbia, Harvard, Minnesota, Temple, Mt. Sinai, UCLA, USC 등 다양한 학교로 많은 학생들이 clerkship을 나가고 있다. 나의 경우 먼저 해외로 방향을 결정하게 된 이유는, 해군장교출신으로서 평소 해외에 나갈 수 있는 조건이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기회를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싶었고, 특히 정형외과는 평소 관심 있던 과였으며, 군의관으로서도 가장 중요하고 소용이 많은 과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선배들로부터 Columbia university medical center 정형외과에 계신 이영인 교수님께 observership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고 매우 기뻐했다. 두 근대는 마음으로 교수님께 가능한지 매일을 드렸고, 걱정했던 마음과 달리 교수님은 너무나도 흔쾌히 허락해주시고 반겨주셨다.

사관학교 졸업 이후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외국여행이라, 뉴욕 가기 전 준비는 매우 긴장되고 떨렸다. 다행히 콜롬비아 대학쪽으로 가는 동기생들이 많이 있어서 크게 의지할 수 있었

다. 2주간 뉴욕에 잠시 머물게 된 노경진 학생과 함께 미드타운에 숙소를 마련하고, 짐을 풀었다.

드디어 실습 첫날, 긴장감 속에 교수님을 뵈었고, 예상과는 다른 포근하고 다정한 교수님의 인상에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다. 교수님은 우리를 매우 반겨주셨고, 특히 장교라는 사실에 대해 높이 평가해 주셨다. 좋게 봐주시는 만큼 더 잘해야겠다는 책임감도 함께 느꼈다. 또한 교수님이 정형외과 이외에도 다른 관심 있는 과나 미육군병원 등에 연락을 취해주셔서 우리에게 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힘써주신 사실을 알고 정말 큰 감동을 받았다.

첫 날은 교수님이 주관하시는 Lab meeting에 참가하였고, 교수님이 의대생 한 명과 함께 연구주제에 대해 활발하게 토론하시는 모습이 참 인상 깊게 느껴졌다.

둘째 날은 뉴저지에 있는 클리닉에서 교수님이 외래진료하시는 것을 참관하였다. 교수님의 외래진료는 매우 인상적이었다. 우리나라에서 의사가 한 방에 계속 앉아있고 환자들이 들어와 인사를 하고 앉는 모습과는 달리, 여기서는 환자가 있는 방에 의사가 직접 찾아가 악수를 청하고 친근한 분위기에서 외래진료를 하는 것이었다. 이영인 교수님은 특히나 환자와 진료 이외의 이야기도 많이 나누시고 환자와의 rapport 형성이 매우 깊어 보였다. 환자들마다 교수님께 최고라고 하고, 정말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모습 또한 감동적이었다.

교수님은 우리에게 의학실습 이외에도 장교로서 리더십에 대해 많이 배워야 한다고 하시며, Mount Everest라는 제목의 journal을 하나 인쇄해 주셨다. 읽고 리더십에 대해 토론해 보자고 하셨다.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으나, 읽으면 읽을수록 교수님이 왜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에베레스트 산 등반이라는 생명이 고가는 극한의 상황에서 리더의 능력과 책임감에 대해 읽고 토론하며, 의학공부만 하면서 평소에 잊고 지냈던 리더십에 대해 다시 한 번 그 중요성을 절감할 수 있었고, 내가 리더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과 가치관에 대해 항상 생각하고 공부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셋째 날부터는 수술에 참관하게 되었다. 교수님의 감독 하에 레지던트 4년차 Dr. Ryon Cessily와 함께 scrub을 서면서 수술을 했다. 한국에서 정형외과실습 들 때는 보지 못했던 다양한 bone tumor, soft tissue tumor를 볼 수 있었다. 한 환자의 경우 칼슘염이 침착되어 생긴 tumoral calcinosis로 수술을 하였는데, 조직을 박리하고 tumor를 드러내는 순간 거기서 하얀 우유 같은 것이(교수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onion cream soup) 나오는데 이런 기상천외한 tumor가 있었다니 정말 놀랍고 신기했다. 간단한 tumor 제거에서부터 하루 종일 소요되는 proximal humerus chondrosarcoma 제거, humerus bone graft 수술까지, 정말 다양한 수술을 보았고 소중한 경험이 되었다.

외래 및 수술참관 이외에도 새벽 일찍부터 병원에 와서 정형외과 레지던트 선생님들과 의대생들과 함께 morning conference와 lectures를 듣는 것 또한 피곤하지만 정말 유익하고 즐거운 경험이었다. 모닝 컨퍼런스가 후 레지던트들이 cast room에 모두 모여 cast 실습을 하는 시간도 매우 유익했다.



정형외과 이외에도 교수님께서 재활의학과 sports medicine 전공 교수님께 외래참관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한국의 정형외과나 재활의학과는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다. 스페인에서 한 달간 재활의학과에 실습 온 본과 4학년 학생과 함께 환자 초진을 보고 진단을 내려 보았으며, 그 이후에 교수님께서 다시 명쾌한 진단과 치료를 내려주셨다. 정형외과에서 본 본과 4학년 학생들도 매우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실습에 임하는 태도를 볼 수 있었다. 그들과 견주어 볼 때, 한국 의대생들은 아직 다소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만 있는 분위기인 것 같다. 그들처럼 좀 더 자신감 있고 능동적인 태도로 환자를 보려고 노력해야겠다는 반성을 해보았다.

하루는 교수님께서 맨해튼에 있는 University hospital of Columbia and Cornell의 영상의학과 오용호 교수님께 실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첫 주 토요일에는 뉴욕에 계신 서울의대 선배님들이 모이신 자리에 초대되어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 한 선생님께서 그린프로젝트 장학금 지원에 낸 나의 CV를 보시고 해군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여학생이라며 칭찬 해주시고 대중들 앞에 소개를 해주는데 몸 둘 바를 몰랐었다. 나보다 훨씬 더 대단한 선배님들이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좋게 봐주시니 감사했고 앞으로 더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그것을 떠나서 학교 선배님들만 미국 땅에서 볼 수 있어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시간이었다고, 이 땅에서 자신의 삶을 개척하고 오랜 세월 멋지게 살아오신 선배님들의 모습을 보니 정말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모임이 끝난 후에도 교수님덕에 함께 와인을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그 다음 주말에는 심인보 선생님 내외분께서 학생들을 불러 차이나타운에서 Pecking duck house의 맛있는 요리를 배불리 먹게 해주셨다. 펙킹 덕 하우스는 정말 맛있게 먹어서 떠나기 전에 한 번 더 다녀와야 할 것 같다. 먼 타향에 와서 낯선 인종들에 둘러싸여 외로움을 느낄 차나에 이렇게 선배님들의 따뜻한 환대를 받으니 큰 감동이었다. 우리의 감사 인사에 선생님께서 '여러분은 하느님에게서 남들보다 더 넓은 영토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과 기회를 받은 분들입니다. 열심히 정진하여 나 자신과 내 가족만을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분들이 되리라 믿습니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선생님의 말씀대로 내가 지금까지 받아왔던 모든 혜택들이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명심하고, 보다 더 많은 것을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해 본다.

언제가나 싶었던 4주의 시간이 저물어간다. 좀 더 열심히 하지 못하는데 대한 아쉬움이 크다. 그래도 교수님의 가르침과 배려로 많이 배우고 경험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었다. 이런 값진 기회와 추억을 만들어주신 이영인 교수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훗날 또 만나 볼 것을 기대해 본다.

### 농담 골목

청년 셋이 낯선 곳을 걸어가다 강가에 도착했는데 강을 어떻게 건너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 청년이 하나님께 "내게 힘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수영복을 주셨습니다. 그 청년이 헤엄쳐서 겨우 강을 건너 갔습니다. 또 한 청년이 하나님께 "내게 기계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조그마한 배 하나를 주셨습니다. 그 청년이 배를 타고 힘들게 강을 건너 갔습니다. 마지막 청년이 하나님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그 동네 지도를 주셨습니다. 지도를 보니 강가를 잠시만 더 걸어가면 강을 건널 수 있는 다리가 있음을 알게 했습니다. (면)

가을이면 숲새들이 암새들을 유혹하기 위해 계속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어떤 암새들은 아무 표정도 없습니다. 마치도 수녀들 처럼 (면)

참으로 조물주는 신봉방통하십니다. 어떻게 인간들이 거기에서 안경을 걸출하고 귀를 만들어 놓았지요? (면)

어떤 유명한 인사가 오래만에 모교를 찾아갔다. 학장은 그를 정중히 맞으며 옛날 그가 있던 기숙사를 돌아보게 하였다. 때마침 그 방에서 여학생과 같이 있던 남학생은 학장이 오자 놀라서 여학생을 급히 옷장에 숨겼다.

"책상도 의자도 옛날 그대로군!" 그는 감개무량해 하며 옷장을 열어 보았다. "역시 여학생이 들어 있는 것도 옛날 그대로군."  
"아니올시다. 선생님, 그 애는 제 여동생입니다."  
"그렇지, 거짓말도 옛날 그대로야." (이덕승)

남편이 미장원에 다녀오는 아내를 보고 화를 벌컥 냈다.  
"이봐, 나하고 한마디 의논도 없이 단발머리를 하면 어찌자는 거야?"  
그러자 아내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대꾸했다.  
"그러는 당신은 왜 한마디 상의도 없이 대머리가 된거야." (이덕승)

## 시계탑 문집 원고모집 안내

1994년부터 매 5년마다 발간해온 시계탑 문집을 창간 40주년을 맞는 2014년 7월에 제5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제5집은 2010년부터 내년 7월까지 시계탑에 게재된 동문 여러분의 원고를 모아 지난 5년간의 추억을 엮을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아울러 표지에 쓰일 작품도 응모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모집하는 원고 내용

- 동기 및 동문동정, 지부소식, 제언과 비평, 수필, 산문, 기행문, 서평, 서간문, 독후감, 영화평, 시, 농담골목 유모어, 자녀들의 자랑 또는 소식.
- 특히 전공과목에 대한 새로운 의학 소식 등을 환영합니다.
- 종교적인 내용은 사양합니다.

### 보내시는 방법 및 보내실 곳

- 성명과 학년을 기재하여 주시고 관계되는 사진, 그림 첨부바랍니다.
- 아래한글, Word를 사용한 word text로는 2매 정도로 e-Mail, or CD로,
- 모든 산문은 원고지는 200자 12매 내외, 기행문은 23매 내외..

**Damian B. Kim, M.D.**  
141-30 33rd Avenue, Flushing, New York 11354  
Tel: (718) 460-5190 E-mail: dbkimmd@gmail.com

# 가십(gossip)의 분석

김 병 석(59, 대뉴욕)



얼마 전 한 중년여인이 우울증을 호소하며 찾아왔다. 그녀는 십여 년간 타주에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조용하게 잘 살아오다 지쳐서 그 비즈니스를 팔고 그동안 그렇게도 열원했던 한국 사람들 많이 사는 후러심 코리안 타운으로 일 년 전에 이사를 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곳에 사는 한국 사람들이 너무나 말이 많고 만나기만 하면 남의 얘기만 하는 통에 진저리가 나서 못살겠다는 것이다. 그 이야기 대부분이 나중에 알고 보면 사실이 아니고 사람들의 흥미를 끌만한 얘기 꼬투리를 잡아서 꾸며낸 것이어서 참 한심스럽다는 것이다. 그녀가 이 사람들과 동조 하지 않았더니 어느 사이에 자기에 대한 기막힌 소문이 돌고 있었다고 한다. 먼저 살던 주에서 자기 가게에 단골로 오던 어떤 남자와 바람이 나 의도를 하다가 남편한테 발각되어 가게를 팔고 뉴욕으로 이사 왔다는 황당한 거짓말이었다. 몇 사람한테 아무리 사실무근이라 설명해도 아무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그만 화를 이기지 못해 잠을 못자고 괴로워 하다가 상담 치료를 받기 위해 찾아 왔다고 한다.

다음 날 이십대의 여성이 불안증과 우울증을 호소하면서 찾아왔다. 한국에서 사는 것이 싫어 수개월 전에 미국에 왔는데 미국에 와보니 일자리도 쉽게 구할 수 없고 적응하기도 힘들다고 한다. 친구도 없어 외로운데 한국으로 돌아가기는 싫고 미국에서 살기도 힘들어 어쩔 줄 몰라 갈등 속에서 지내다 보니 그만 잠도 못자고 불안해져 상담 치료를 받으러 왔다고 한다. 한국에서 살기 싫은 이유를 물어보니 한국 사람들은 남의 사생활에 대한 얘기를 너무 많이 하고 걸치레에만 신경을 쓰고 선후배를 지나치게 따지는 것이 싫다는 것이다. 이를 연거푸 한국 사람들 가십(gossip) 때문에 우울증 환자가 된 사람들을 진료하고 나니 정신분석가로서의 가십에 대한 분석을 해 볼 필요

를 느꼈다. 소문(rumor)이란 사람들이 나누는 일반적인 남의 얘기를 말한다. 가십이란 소문의 일종인데 남의 실증되지 않은 사생활에 관한 얘기를 확실한 것처럼 소문으로 퍼트리는 것이다. 이 둘은 모두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고받는 얘기들이다. 개인적 또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십에 대해 이미 많은 심리학자들의 연구가 발표되었다. 가십의 공통적인 것은 가십 주인공의 비도덕적 행동을 지탄하는 것이 많다는 것과 가십이 사고 수단으로 많이 이용된다는 사실이다. 가십에 있어서 비도덕성을 지탄하는 이유는 가십 내용에 주로 바람피우는 것 같은 섹스에 대한 것이 많기 때문이며 가십이 사교하는 데 이용되는 이유는 가까운 사람들 끼리나 가깝지는 않지만 안면 있는 사람들 사이에 재미있는 공통 화제를 제공하고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아주 좋은 주제(topic)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특히 공통 화제를 찾기 힘든 파티석상에서 가십은 파티에 생동감을 주는 대화영의 애깃거리가 되며 그 가십이 사실이나 아니냐 하는 데에는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십의 대상은 사회적 명성이 있는 인사나 존경받는 명사가 주가 되며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보통 사람의 가십은 별로 알려지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씹어봤자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표하지도 않고 재미없어 하므로 씹어봤자 별맛이 없기 때문이다. 가십의 재미란 공통 화제를 신나게 나눌 수 있고 그 가십의 주인공들을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스릴(thrill)을 말한다. 여기에서 인간의 성악설의 한 근거를 볼 수 있기도 하다. 가십을 주고 받은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몇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우선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고 일축하는 사람이 있고, 두고 지켜보자고 중립을 지키는 사람도 있고, 재미있다고 잠시 즐기는 사람도 있고, 열심히 가십을 퍼트리는 사람이

있다. 가십 자체는 시간이 흐르면 대개 없어져 버리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몇 가지 파생되는 문제는 심각하다. 첫째는 시간이 흘러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 되어도 이 사실은 처음에 가십이 퍼질 때만큼 신속하고 확실하게 전달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사실무근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 이것은 이미 가십의 묘미가 사라지기 때문에 사교적 가치가 없어지고 흥미를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진실보다는 재미있는 헛소문에 더 흥미를 느낀다. 더구나 그 가십이 바람피운다던가 섹스에 관한 것이면 겁잡을 수 없이 퍼질 뿐만 아니라 과장하고 드라마틱한 스토리까지 붙여나 여러 사람을 신나게 한다. 가십은 대리만족 또는 대리보복 등의 성격이 있으며 대중을 움직이는 힘이 상당히 크다.

다음은 가십의 진실여부를 확인해 보지도 않은 채 들은 것을 철저히 믿고 가십 대상자를 비난하고 모독하고 회피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몇가지 문제가 발견된다. 첫째는 고집불통의 완벽성을 가진 성격장애자이거나, 둘째는 자기 자신의 바람피우고 싶은 욕망 같은 부도덕성을 무의식적으로 감추려는 사람이며, 세 번째는 가십의 주인공에게 열등감을 느끼고 무의식적으로 질투와 시기심을 가진 사람이 가십 주인공을 밟고 자신이 올라가려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은 이 가십이 자기에게 굴러들어온 아주 좋은 기회라 여겨 즉시 이용하는 일종의 보복적 행위로서 그 쾌감을 어디에 비할 수 있겠는가.

다음 문제는 아주 드물게 가십을 퍼트리고 다니는 사람이 그 가십의 주인공 중의 하나인 경우이다. 이때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양쪽 말을 다 들어보고 사리를 판단해야 옳다. 왜냐하면 자기가 직접 관여된 소문을 자기가 퍼트리고 다닌다는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 이익이 되게 하려는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를 퍼트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분별 있는 사람은 한쪽 말만 듣고 그것을 믿어 버리지 않을 것이니 자기 자신이 그런 가십을 퍼트리는 사람의 말을 그대로 믿지는 않을 것이다. 이때 한쪽 말만 듣고 그것을 철저히 믿고 그 사람과 동조하여 다른 주인공을 부도덕하다고 비난하고 모독하고 따돌리는 사람이 있다. 이 경우

도 앞에 말한 것처럼 이 가십을 신나게 퍼트리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는 물론 가십에 대한 것이지만 한 가지 더 생각해볼 수 없는 것은 한국 사람들의 이러한 파괴적 성격의 일면이다. 한국 사람들이 남의 사생활 문제에 지나치게 흥미를 갖고 가십을 자기 이익과 어떤 방편을 위해 이용하고, 심하면 직접 관여하여 일을 확장시키기도 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남의 얘기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을 나의 두 환자만이 느끼고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한국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실이다. 여기에서 제시되고 있는 큰 문제는 이 단순한 문제 때문에 자기 나라 사람을 싫어하고 자기 나라에서 살고 싶지 않다는 느낌까지 든다면 이 얼마나 큰 문제이고 비극인가.

미국 문화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시대와 땅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 특히 미국에 이민 온 동포들에게 이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물론 미국적 관습이나 문화나 국민성이 다 옳고 좋은 것은 아니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해 존중하려는 기본적 예의와 같은 장점은 택하여 본받는 것이 좋겠다. 가족주의에 젖은 한국 사람들은 미국인의 개인주의적 태도가 냉정하다고 많이 비판해왔으나 현재는 한국 사람들도 개인주의적 태도를 많이 받아들이고 실행하고 있다. 부모 자식 간의 의견 존중이나 독립생활, 자녀들의 직업 선택, 배우자 선택 등을 존중하고, 그들의 사생활에 관여하지 않게 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가고 있다. 예전과는 확연히 다르게 절대적으로 부모를 부양하거나 자녀가 부모의 뜻을 부득이 따라야 하는 문화는 점점 사라지고 늘어도 자식들에게 모시게 하지 않고 따로 살거나 노인 공동체를 택하거나 혼자 살기도 한다.

이렇게 개인주의의 장점이 우리의 생활 속으로 스며들어오고 있다. 그렇다면 남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그에 대해 불필요한 부정적인 말을 만들지 말고 무례하게 관여하지 않는 것 또한 장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 장점에 우리 한국 문화의 장점인 따뜻한 인정을 보태면 참으로 덕망 있는 개인주의자가 될 수 있다. 그리하면 추한 가십이 사라질 것이고 한국인 사회가 화목해지고 밝아질 수 있을 것이다.

# 당신



허선행(64, 대뉴욕)

감정이나 존칭없이 없이 말한다면 당신도 너고 너도 당신인데 무엇 할 말이 이리 많겠는가 하겠다.

“당신은 누구시길래 내 마음 가져 갔나요!!!!”

이 “당신”이란 말 속엔 너무나 간절하고 또 진지한 고백이 들어있는 것도 같고 아니면 한번만 봤거나 아직 만나지도 못한 그 사람 그리워 한탄하면서 원망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음울인 것 같다.

나는 우리말을 연구한 학자도 아니지만 당신이란 2인칭의 우리말이 품고 있는 뜻을 막연히 새겨보고 싶어졌다. 사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다 그렇게 느껴왔고 적절하게 당신이란 말을 사용해 왔던 것이다.

따지고 보면 나는 영어같이 힘든 언어는 드물다고 생각해왔는데 이에 못지않게 우리말도 깊이 들어갈수록 그 느낌을 알기가 힘든 언어임에는 틀림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소위 우리말의 “당신”과 영어의 “You”도 때로는 그 바탕에 깔린 뜻에서 서로 통하는 점이 많은데 대화의 문맥에서 당신 아니면 You가 귀에 거스릴 때도 있고 마음이 무너지거나 열리면서 희로애락이 뒤섞일 수도 있는 것으로 본다.

어느 여인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킷속말로 “당신(그대) 없이는 못살아”의 당신은 사모와 존경과 열정이 같이 하는 간절한 뜻의 당신이 겹치지만 갑작이 상관아 부하 직원에게 “당신 나 좀 봅시다”한다면 그 어감 하나만 가지고도 당신 속에 들어있는 혐오감, 실망 때로는 증오의 칼날이 번쩍이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렇게 “당신”의 뜻이 문맥의 앞뒤와 말하는 이의 태도나 음성이 주위 상황에 따라 여러모로 다른 느낌을 뇌세포에 전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어르신들이 누구를 부르시면서 “너 이 녀석” 신통하고나 아니면 이게 무엇이나? 이것도 성적이라고?? 또 무슨 사고를 쳤니? 하면서 말하신다면 그 “너” 속에는 하늘과 땅사이 만큼의 차이가 있는 감정과 그 느낌이 흐르고 있다고 본다.

학교 선생님이 교실에서 어느 학생을 “너”하고 불렀을 때 “너”의 어감으로 그 학생은 좋은 소식 아니면 어려운 질문일 것을 이미 알게 될 것이

다. 그래도 학교 선생님이시니까 학생(제자) 이름 대신 “너”라고 불러도 큰 어패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부드러운 “너”라는 말씀이 거칠고 날카로운 음성 보다 훨씬 더 바람직한 일이라고 여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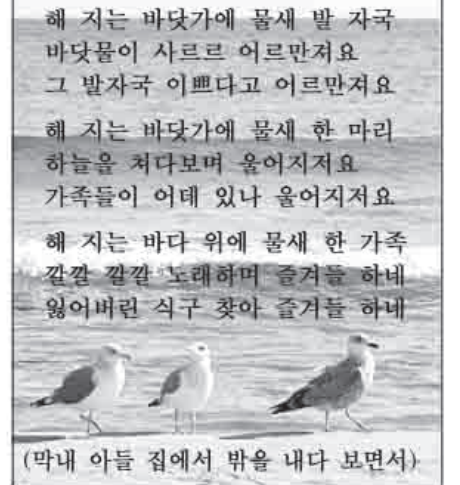
우리말에 “당신”을 당신이라고 부르기도 존경하는 사람, 윗 사람, 처음 보는 사람한테는 xx 씨, xxx님, x 사장님, x 회장님, x 국장님, x 장관님, x 박사님 등등... 아!!! 그리고 xxx 의원님, 따지고 보니 끝이 없는 것 같다. 그외에도 너 대신, ‘자네’라는 표현이 어르신이나 아주 윗사람이나 선배들한테서 쓰여진다.

사실 이 상식적인 글을 써 보는 이유는 최근 한국 국회에서 있었다는 뉴스 중에서 어느 장관님 아니면 국무 총리께 어느 의원님께서 질책의 질문을 했었다는데, 말씀인즉 그 의원님께서, 그 정부관리께 고성으로 “너” 아니면 “당신”이라고 하면서 질책 추궁하는 사건이 있었다고... 너무 황당해지면서 그저 이 내용이 사실이 아니었길 바랄 뿐이다.

내가 볼 때 한국의 언어 교육은 외국어 보다는 우선 우리말부터 제대로 배워 말하고 이해하며 장소와 대인 관계에 따라 어떤 단어 또는 용어를 써야하고 또 써서는 안 된다는 언어의 윤리도 강조해야 할 것이다. 공식 석

# 해 지는 바닷가

노용면(55, 대뉴욕)



상에서 우리말로 연설이나 강의를 하거나 대화를 나눌 때 우리말로도 적합한 용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외국어를 섞어서 유식한 척 아니면 박식한 척하는 분들을 가끔 보아왔는데, 사실 내가 안 좋아하는 장면이다. ‘당신’이란 말을 다시 한 번 더 익히면서 우리 모두 우리 좋은 말 부드럽고 예의있고 격에 맞게 계속 써보자는 것이 나의 주장이다.

오페라 'Il Pirata(해적)'은 작곡가 벨리니(Bellini)가 쓴 11개의 오페라중 3번째 작품으로 그의 명성을 날리게 한 첫 성공작품이었다. 그때 그의 나이 27세이었다. 내가 이 오페라를 처음 접한때는 이미 40여년이 되어버린 1969년 어느 날 보스턴 하버드 굽에서 레코드 하나를 샀을 때였다. Maria Callas의 Mad Scenes이라는 레코드였는데 레코드 커버에 Anna Bolena, Hamlet, Il Pirata 라고 적혀 있었다. 내가 알아본 이름은 Hamlet 뿐이었다. 그날 집에 와서 레코드를 틀어 놓고 다른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한참의 폭풍우 같은 오케스트라의 전주가 나오더니 갑자기 잔잔한 하프의 반주를 배경으로 하여 오보에의 가련한 멜로디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찾아보니 벨리니 작 '해적'의 '광란의 장면'의 첫 부분이었다. 곧悲戀에 잠긴 마리아 칼라스의 음성이 따랐다. 그 후부터 이 장면에 나도 미친(?) 것은 물론이다.

그로부터 이 오페라 전편을 참으로 듣고 싶었다. 1958년 이태리의 스칼라극장에서 공연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Il Pirata(海賊)의 해적관이나마 어떻게 나오지 않았나 하고 궁금했었다. 할 수 없이 뉴욕 줄리아드 음악학교의 도서관을 찾아갔었다. 거기서 찾으니 그 오페라 레코드는 없고 libretto(가사 대본)는 있다고 해서 그 책 선반으로 가서 Il Pirata 가사 대본 책을 열어보니 이태리어로만 된 것이어서 도로 놓고 나왔었다.

그러는 사이에 칼라스의 'By Request' 라는 레코드판에 이 오페라에서 나오는 또 하나의 소프라노 아리아가 나와 있어서 그것까지 들으면서 이 전체 오페라에는 얼마나 아름다운 음악들이 있을까 하는 궁금증을 한층 더 일으켜 주었다. 얼마 후에야 Montserrat Caballé가 녹음한 Il Pirata 레코드가 나오긴 했지만 아무래도 성이 안차서 꼭 칼라스가 연주한 것을 듣고 싶었다.

이 벨리니의 오페라 해적과 도니제티 작곡의 오페라 Anna Bolena(안나 볼레나) 이 두 오페라는 초연이후로는 상당히 오랫동안 파묻혀 있었다. 후에 칼라스 같은 acting with voice를 할 수 있는 오페라 가수가 나오면서 스칼라극장에서 마침내 1957년과 1958년에 이 오페라들을 부활시켰던 것이었다. 그 당시 칼라스의 기막힌 열연은 일대 센세이션을 일으켰었다. 그때의 레코딩(적어도 생녹음이라도)이 꼭 있을 텐데 언제나 시장에 나올 수 있을까 하고 갈망하던 중 마침내 요즈음 그때의 live recording들이 CD로 나와서 될 듯이 기뻐다. 안나 볼레나는 스칼라 좌에서 공연한 것이었고, Il Pirata는 1959년 칼라스가 American Opera Society의 초청으로 뉴욕 카네기 홀에서 Concert Opera로 연주한 것을 생녹음한 것이었는데 이 두 CD가 연주할 때 청중들의 열렬한 반응까지 곁들여서 듣는 이에게도 더욱 흥분과 생동감을 주곤 한다.

오페라 해적은 13세기에 Sicily 섬에서 일어난 얘기로 Imogene (소프라노)이라는 여주인공을 둘러싸고 Gualtiero (Count of Montalto, 테너)와 Ernesto (Duke of Caldora, 바리톤)와의 싸움으로 얽혀지는 비극이다. Battle of Benevento는 (현재 이태리 남부에 있는 고장) 그 배경이 되어있다.

1266년에 있었던 이 전쟁은 Charles of Anjou의 군대와 Manfred of Sicily 군대와의 대결로 Manfred파는 패하고 Charles of Anjou파가 차지하게 된다. 이때 Manfred파였던 팔티에로는 패전하여 해적으로 전락하고 같은 파였던 이모제네의 아버지는 Charles of Anjou 파였던 에르네스토에게 잡혀 투옥되었다.

그 후 팔티에로는 해적선 선장으로

있으면서 계속 적군(Charles of Anjou 파)과 해전을 하면서 이렇게 해서라도 생명을 버티어 가는 단 한 가지 이유는 두고 온 애인 이모제네를 꼭 찾아 만나보는 것이다. 한편 팔티에로를 잃고 하필 그의 불구의 원수인 에르네스토의 아내가 되어 그의 아들까지 낳고 사는 이모제네는 하루하루가 서글프기만 하다. 에르네스토는 싫어하는 이모제네에게 투옥되어 있는 그녀



## Il Pirata(해적, 海賊)

이혜원(61, 필라델피아)

의 아버지를 살려준다는 조건으로 그녀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약속까지 하면서 결혼까지는 하였지만 사랑을 주지 않는 아내를 둔 그녀는 늘 불안하고 불만스럽다.

오페라가 시작될 즈음에는 팔티에로가 Charles of Anjou파인 에르네스토와의 해전에서 패하여 파선된 그들의 배가 표류하던 끝에 닿은 곳이 하필이면 에르네스토의 도시국가 해변이다.

경쾌하면서도 폭풍우와 풍랑을 상징하는 듯 한 서곡이 한참 있는 후에 막이 오르면 에르네스토가 다스리는 도시국가 칼도라(Caldora)의 해변이다.

뒤쪽으로 옛 수도원이 보이고 거기에 은거인(隱居人)으로 살고 있는 Geoffredo(바스)가 그 근방의 어부들과 아내네들과 함께 나와서 해변에 표류되어 온 선원들을 억센 풍랑 속에서 힘들게 구조해 내고 있다. 그 사이사이에 들리는 지오프레도의 격려와 신에게 도움을 기도하는 사람들의 간절한 합창들도 아름답다. 가까스로 모두를 끌어 올려내고 마지막으로 부하 Itulbo(테너)의 부축을 받으며 해적선장 팔티에로가 나머지 선원들과 함께 올라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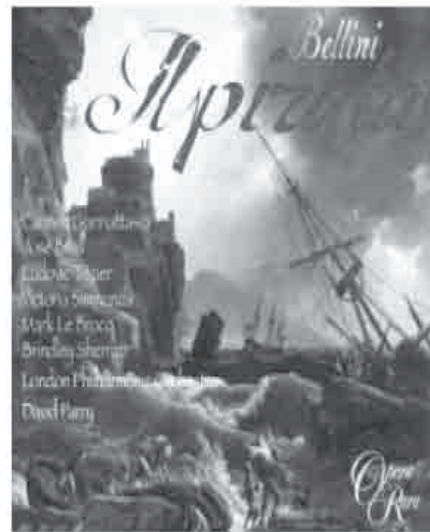
'아직 내가 살아있다니' 라고 하는 팔티에로의 음성에 지오프레도는 그가 바로 자기의 제자였던 것을 알아차리며 '팔티에로!' 하고 부르니 팔티에로도 자기의 가정교사였던 지오프레도를 알아보고 둘은 반가워 얼싸안으면서 서로의 안부를 묻는다. 어떻게 지내냐고 하는 질문에 지오프레도는 팔티에로의 집안이 몰락한 후 자기는 세상을 등지고 은거생활을 하고 있노라고 한다. 곧 이모제네의 소식을 다그쳐 묻는 팔티에로에게 지오프레도는 '아직도 그녀를 생각하고 있는냐' 고 불안하게 묻는다. 이에 팔티에로는 아련한 반주를 따라 "Nel furor delle tempest (풍랑과 살생 속에 사는 나에게 그녀는 늘 천사 같은 모습으로 떠오른다고)" 고 하면서 '불쌍한 사람이여' 하는 지오프레도의 답송에 좀 더 빠른 박자를 따라 "Nulla io spero (나에게는 바라는 것은 하나도 없고 그저 그녀의 사랑만이 내 비참한 어두운 마음속을 비치는 한줄기의 빛이라고, 나의 인생은 그녀의 사랑 뿐)" 이라고 고백한다. 마침 이때 난파 소식을 들은 공작부인이 직접 도우러 오신다고 하니 지오프레도가 팔티에로더러 '빨리 숨어야 한다' 고 하니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서 팔티에로는 다시금 멋있는 전주를 따라 Per te di vane lagrime (그대와 같이 산다는 희망만이 눈물속에서 라도 살아야겠다는 욕망을...)" 하고 끝낸다. 이 테너의 아리아와 카발레타 둘 다 참 아름답다.

지오프레도가 급히 팔티에로를 데리고 은거지로 들어가자 공작부인인 이모제네가 시녀들을 대동하고 와서 끌어안은 선원들보고 '일어나라 고난당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자기의 의무

이며 칼도라국의 전통' 이라 하면서 '당신네들은 어떤 사람들' 이냐고 물으니 팔티에로의 부하대장 이틀보가 얼른 'Palermo를 향하던 선원들' 이라고 대답하자, 이모제네는 급히 '바로 거기서 큰 해적이 벌어지지 않았느냐' 고 다그쳐 물으며 '그때 해적들을 만나지 않았느냐' 고 하니 이틀보가 얼른 해적들은 완전 패배했다고 한다. 이모제네는 '그럼 해적선

장은?' 하자 이틀보는 속으로 뜨끔해 하면서 그는 포로가 되었는지 전사했을 것이라고 한다. '아, 그이가 죽었다니!' 하고 이모제네가 괴롭게 중얼대자 시녀 Adele(소프라노)는 '조심하시라' 고 하면서 주위 사람들을 다 물러나게 한다.

둘이만 남게 되자 낙담한 이모제네는 슬픈 반주에 따라서 "Lo sognai fertio, essangue, in deserta (꿈에 그이를 보았어, 아무도 없는 해변에 부상당해서 누워있는 그이를... 피에 젖어 누워서... 내가 아무리 울며 소리 질러도 바람도, 바다도, 온 자연도 대답이 없었어...)" 하니 아델레와 주위의 하녀들이 걱정하는데 이모제네는 다시 "Quando a un tratto il mio consorte (갑자기 내 남편이 화가 나서 내가 그이를 죽게 했다고 하면서 나를 붙잡아 끌고...)" 하고는 다시 "Muta, oppressa, sbigottita (얼떨떨한 채 끌려가는데 바람을 타고 죽어가는 그이의 한숨이 나에게 들려왔어... 아! 그 꿈이 정말 일거야...)" 하면서 주위의 동정하는 합창을 배경으로 거의 울부짖음으로 끝낸다.



그때 마침 밖으로 나온 팔티에로가 이모제네를 얼른 알아보고 낮은 소리로 '아 그녀!' 라고 한다. 그의 음성을 들은 이모제네가 '누구이지?' 하니 이틀보가 '이런 난파로 모든 소유를 잃고 정신이 돈 사람' 이라고 얼른 대답한다. 그러면 그를 도와주자고 하면서 이모제네는 다시 "Sventurata, anch' io deliro (실성한 불행한 그 사람을 도와야지, 나도 정신이 들었는데... 비록 그이는 죽었지만 사실은 나와 같이 숨 쉬고 있잖아...)" 라고 하면서 아리아를 고음으로 끝낸다. 아주 아름답다. 주위에서 '도울 사람은 다 있으니 부인은 돌아가시라' 하면서 그녀를 부축해서 성안으로 들어 가면서 이 장면은 끝난다.

다음 장면은 성 밖의 테라스이다. 밤이다. 무대 밖에서 해적선원들이 술을 마시며 신나게 합창을 하고 있다. 그래도 조심하자고 서로 타이르는데 이틀보가 나오면서 다시 축배들을 한다. 곧 공작부인이 나온다고 우리가 누구인지 알면 큰일 난다고 서로 타이르면서 모두들 떠나간다.

무대에 나온 이모제네가 아까 실성해 있던 사람에 대해 묻자 아델레가 '그는 멀리 떨어져 혼자 생각에 잠겨 있더라고, 공작부인이 만나자고 한다고 했더니 그는 아무 말도 없더라' 고 한다. 아델레더러 주위에서 땅을 보라고 하면서 따뜻한 감을 주는 전주를 따라 '왜 내가 그 사람에게 마음이 끌릴까 슬퍼하는 그를' 하는데 망토로 몸을 가리고 얼굴을 쪽쪽인 팔티에로가 가까이 온다. 이때부터 두 사람의 짧은 대화 이중창이 시작된다. 이모제네는 공작부인답게 권위 있게 동정을 하며 따뜻하게 여러 가지를 묻는다. 그러나 그는 '자기는 가족도 고국도 아무도 없는 사람' 이라고 고만 대답하자 이모제네는 더 대화를 계속할 수 없어 슬픔조로 '더 도와드릴 수 없으니 안녕' 하고 돌아 서는데 그제야 팔티에로가 가지 말라며 '어떻게 그렇게 못 알아보냐' 하니 팔티에로를 알아보고 둘은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뜨겁게 포옹한다.

그러나 곧 그녀는 그의 품에서 빠져 나오면서 팔티에로 보고 빨리 피신하라며 여기가 바로 에르네스토 공작령(領)이라고 하니 '그러면 그대는 왜 이곳에 있느냐' 하는 팔티에로, 이때부터 두 사람의 가없는 대화 이중창이 시작된다. 자기를 저버리고 결혼한 그녀를 그는 나무라며 꾸짖고 그녀는 울면서 늙은 아버지가 적편이었기에 에르네스토의 감옥에서 죽을 처지었던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할 수 없이 그의 아내가 되었다고 한다. 팔티에로는 '많은 시련과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기면서도 그녀를 만나기 위해서 살아왔던 자기의 단 하나의 희망을 저 버렸다' 고 실망에 찬 항의를 하고 서글프게 변명하는 그녀, 이 두 사람의 대화 이중창은 참으로 안타깝고 고민에 찌나 음악은 아름답다.

그때 마침 시녀들이 그녀의 아들을 데리고 오자 팔티에로가 에르네스토를 꼭 닮은 그 애를 잡고 막 칼을 뽑으려하는 찰라 거의 기절하는 이모제네를 보고서 도로 놓아준다. 그는 화난조로 '그때 때문에 갈기갈기 찢어진 가슴이요, 아들을 돌려주니 그 애를 보면서 나를 배반한 아픔을 맛보시요' 하고, 그녀는 '이 일을 고상한 그대의 용서로 알겠어요' 하는 둘의 이중창은 참으로 절절하다. 그는 화가 나서 곧 무대를 떠난다.

다음 장면은 화려하게 조명된 칼도라의 궁전 밖이다. 거기에 많은 군인과 신하들이 모여 개선장군인 에르네스토를 칭송하는 합창을 장엄하게 부르고 그에 응답하는 에르네스토의 독창이 따른다. 그러나 승전해 온 남편을 미치지근하게 맞이하는 아내를 에르네스토는 나무라면서 파선당한 선원들을 왜 그렇게 후대했냐고 묻는다. 이어서 그는 선원들의 지도자와 은거인을 소환하였다고 한다. 곧 이틀보와 은거인은 팔티에로를 되도록 뒤로 감추고 이틀보가 지도자가 자기라고 한다. 그네들이 지나온 땅이 Liguria라고 하니 거기 팔티에로가 피난한 곳이라고 하면서 우선 당신들을 칼도라에 지체시키겠다고 한다.

급해진 이틀보가 옆의 이모제네에게 도와 달라고 하니 이모제네는 '고생 많이 하고 불행을 당한 사람들이니 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하자' 고 공작에게 중계하여 할 수 없이 공작은 그러면 다음날 새벽으로 다 출발할 것을 허락한다. 모두 그녀에게 무릎을 꿇고 감사드리는 동안 에르네스토는 조용히 자기 부하들에게 잘 지켜보라고 이른다. 이때 팔티에로는 아무도 모르게 이모제네 보고 '떠나기 전에 꼭 한번 다시 만나자고, 그렇지 않으면 좋지 않은 일이 있을 것' 이라고 간청하고, 한편 에르네스토는 '아무래도 <다음면에 계속>



# 체면유지비

오대희(64, 커네티컷)



우선, 체면이 무엇인가? 체면이란 남을 대하는 행동이나 태도에서 풍기는 사람의 품위이다. Attitude, dignity, manner, prestige, honor, behavior, a good name 등등으로 옮길 수 있으나 어느 단어도 제대로 딱 들어맞지가 않는다. 체면은 '남보기가 부끄럽다'는 일방적 행동규범이며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게 마련이다.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누구나 체면이 앞서는 일이 언제나 따라 다닌다. 이 체면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체면유지비'라고 한다. 주로 은퇴한 사람의 생활비를 의미하는, 익살스러운 용어이기도 하다.

한 가지 예로, 장례비용을 들 수 있다. 장례비의 특성은 고인의 체면을 위해서도 흥정을 하지 않는다. 선불리 장례비를 흥정하다가는 유가족의 체면을 구길 수가 있기 때문이다. 여담이지만, 그래서 장례보험이 잘 팔리는가 보다.

나는 1987년이 저물던 설날 중순 장인께서 LA 막내 아들집에서 유명을

〈전면에서 계속〉 수상한 작자들이니 염탐해 보아야겠다'고 하는 불의 중창이 있고 이어서 이모제네가 '그냥 헤어지자'고 애걸하는 노래와 시너 아델레의 걱정하는 음악과 이틀보와 지오프리의 불안으로 찬 노래가 주위 모두의 합창과 어울려서 한창동안 중창이 계속된다. 이때 팔티에로가 에르네스토에게 막 달려들려는 찰라 그것을 보는 순간 이모제네가 갑자기 기절하는 바람에 모두들 놀라서 그녀를 데리고 공전으로 데리고 들어가고 팔티에로는 부하에게 억지로 끌려 나가고, 공작은 부하들과 남아있는 데 막이 내린다.

제 2막의 첫 장면에서 막이 열리면 이모제네 거실의 앞방에 시녀들이 모여 그녀의 회복을 기원하는 합창을 하고 있다. 아델레가 나와서 이제는 이모제네는 회복 되셨으니 모두들 돌아가도록 전달한다. 이어 아델레는 이모제네더러 '팔티에로가 만나기를 기다리고 있으니 동트기 전에 어서 가 보아야 한다'고 하니 이모제네가 몹시 주저하다가 그럼 어서 가자고 하면서 둘이 물래 가는데 뒤에서 발자국소리가 나면서 곧 공작이 나타난다. 아델레를 나가게 한 후 공작은 'Ognor mi fuggi (그대는 계속 나를 피하는데 자꾸 거짓 핑계대지 말고 내 옆에 좀 있어주소...)' 한다. 이에 이모제네가 '내가 전부터 몸이 불편한 것은 이미 알던 일이고, 망한 집안, 돌아가신 부친...' 하는데 공작은 얼른 '당신은 원치 않던 결혼, 그리고 잊지 못하는 그 녀석에의 연정 때문...' 이라고 공박하니 속으로 움찔하면서도 그녀는 '제가 이미 당신의 아내이고 당신의 아들까지 낳아준 것으로 기뻐해요.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은 마음속에서만 있다는 것으로 만족하세요'라고 반박한다. 이에 분노한 공작은 "Tu m'apristi in cor ferita (자 이제 당신은 지독하게 내 심장을 찔렀소... 나쁜 어머니야, 못된 아내, 불륜의 여인...)" 이라고 꾸짖으니 그녀는 "Quando al padre io fui rapita (내가 아버지로부터 할 수 없이 떠날 때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은 당신도 다 알고 있던 사실이었어요. 당신이 원했던 것

달리 하셨다. 때마침 서울에서는 만상제가 대학입학자격시험 출제위원장이라 시험이 끝날 때까지 출제위원들과 호텔에 갇혀 있는 형편이었다. 그러니 나처럼 LA로 곧장 날아 올 수가 없어 만상제 노릇은 만사위인 나의 몫이었다.

그때만 해도 LA에 하나 밖에 없던 한국인 소유의 영구(靈柩; coffin) 판매상을 찾아 가려는데 장모님이 나오고, "오서방, 영구는 좋은 걸로 준비하게" 당부에 당부를 하셨다. 평소에도 장모님은 만사위와 대화를 무척 아끼시는 편이었는데 오죽하면 나보고 그렇게 간곡히 부탁을 했을까? 만일 만상제가 나보다 먼저 도착하였다면 영구는 고급으로 준비하라고 부탁 아닌 명령을 내렸으리라. 이것이 바로 장모님의 체면이었다.

영구상 주인을 만나니, 판매장 안에 진열되어 있는 고급 영구를 가리키며, 호압 이병철 씨가 얼마 전에 돌아 가셨을 때에 서울에서 저런 관(棺; hearse)을 주문해 갔다고 묻지도 않는 말을 꺼냈다. 삼성의 총수 같은 부호도 떠날 때에 가지고 간 것은 저런 관 하나가 전부였다며, 떠나가신 장인을 흡사 이른바 부호처럼 칭송하면서 관 값은 얘기도 하지 않고 내 눈치만 살폈다. 나는 값은 흥정도 하지 않고 가장 비싼 관을 골랐다. 나도 체면이 있지 장인의 관 값을 무슨 수로 흥정하랴!

요즈음, 동기동창이 안부를 물으면 몇 해 전만 해도 타부처럼 느끼던, 죽는 얘기가 거침없이 튀어 나오지만

은 내 사랑이 아니라 아내로서만 있었지요)"라고 반박한다. '그래 그 녀석을 아직도 사랑하지, 그래 사랑하지'라고 남편이 소리 지른다. 이에 그녀는 극히 비조에 뽀 음성으로 "Io l'amo, vero (맞아요, 그이를 사랑해요. 그러나 그 사랑은 이미 죽어 땅에 묻힌 사람에 대한 희망없는 사랑일 뿐... 가슴속에서 천천히 사라질...)" 하다가 슬프고 아름다운 반주에 따라 둘이 제각기의 생각을 쏟는 이중창이 나온다. 두 사람 다 가없다. 그녀는 '곧 세상을 떠나 하늘에서나 위로를 받을...' 공작은 공작대로 '이제는 그녀의 사랑을 받을 희망은 다 사라지고, 비참하게 복수하는 것밖에...' 라는 처절한 내용이나 멜로디는 극히 아름답다.

이때 부하가 건네어 주는 편지를 읽은 남편이 '팔티에로가 여기에 있다, 이놈이 여기 있으면서... 내 아내와 만났나... 이 못된 여인아... 그놈 어디 있지?' 하니 모른다고 하나 공작은 꼭 찾을 거라고 한다. 이모제네가 '제발... 죽게 될지도 모르는 내 곁을 제발 피하라고, 아들까지도 당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간청하나 머리 끝까지 화난 공작은 튀어 나가고 그녀도 따라 나서면서 막이 내린다.

다음 장면은 첫 막에서와 같은 해변이다. 새벽이다. 부하 이틀보는 팔티에로 보고 어서 떠나자고 늦어지면 모두가 위험하게 된다고 하나 팔티에로는 이모제네가 안 오면 원수를 갚을꺼라고 승강이하는데 그녀가 오는 소리를 듣고 이틀보는 자리를 뜬다.

이모제네는 단호한 음성으로 '발각되었다.' '합말 있으면 빨리 말해 달라'고 한다. 팔티에로는 자기네 배 두 척이 도착했다 여기서 싸울 수도 있지만 당신과 같이 이곳에서 피해가고 싶다고 하며 눈물만 흘리고 있는 이모제네를 보며 어서 떠나자고 한다.

다시 아름답고 파사로운 전주에 따라 그는 간원의 음성으로 "Per noi tranquillo un porto (저 넓은 바다에는 우리 둘을 위한 항구가 있고... 어서 가요)" 하니까 울고 있던 이모제네는 그래도 지극히 갈아 앉은 목소리로 '더 이상 말하지 말자'고 '떠난들

다른 할 말이 별로 없다. 대학에서 은퇴할 때 받은 Professor Emeritus 증서가 유일한 자랑거리이다. 40년 전에 전문 의사 수련을 마치고 일자리를 구할 때, 애들 과자 값도 안 되는 봉급 받고 대학에 남는다고 고개를 가로 젓던 친구들이 어느새 떠나기 시작한다. 죽는 데는 차례가 없으나 해마다 몇 사람 씩 먼저 가고 나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허무감이 나를 괴롭힌다. 죽는 데는 언제 내가 차례라는 힌트도 없다. 1988년에 폐암과 뇌암을 진단받았을 때에 나는 친구들 앞에서 내가 천국에 먼저 가서 골프 코스를 만들어 놓을 테니 나중에 오면 골프를 함께 치자고 약속하였는데 뭐가 급해 골프코스를 짓기도 전에 먼저 떠났느냐?

연로하신 선배와 어쩌다 통화를 하면 지금 나이 칠십 몇이야 아직 어린애니 어디 가서 명함도 꺼내지 말라는 충고를 한다. 하여튼 나보다 오래 사는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다. 다만, 오래 사는 일이 축복인가 고역인가 대답이 간단하지 않다. 사람이 늙으면 아무리 간수를 잘 해도 모든 게 낡기 시작하고 몸과 마음에 녹이 슬면 인생살이가 고달프다. "인생은 고통으로 얼룩지고 때로는 고통으로 가득 찬다"는 어느 시인의 읊조림을 피부로 느낀다.

현대의학의 눈부신 발전은 인간의 수명을 '참세기'에 나오는 인물처럼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으나 이에 따르는 사회보장제도의 골칫거리로 등장하고 있다. 장수국으로 알려진 일본에

늘 가책으로 고생활 것이고 더구나 우리가 어디엘 가든 숨을 곳은 없다'고 참으로 가슴 아프지만 강경하게 대답한다. 그녀의 애원하는 음조는 듣는 이의 가슴까지 아프게 들려온다. 계속 애원하는 애인들끼리의 애타는 대화창이 한참 계속한다. 이때 공작이 물래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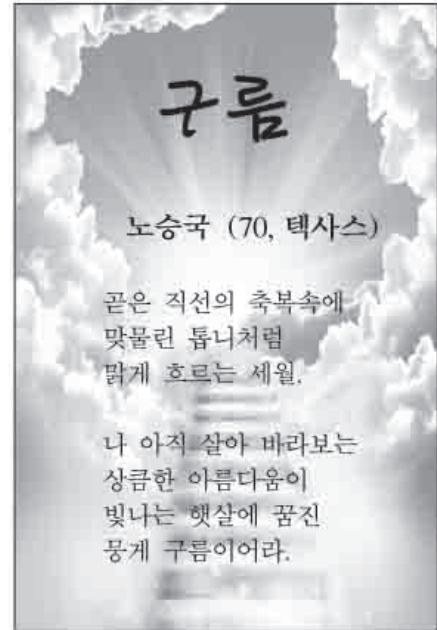
이 일을 모르는 두 애인은 아름다운 반주를 따라 팔티에로의 "Cedo al destin orribile (내 행복을 뺏어간 비참한 운명에 할 수 없이 잔인한 그대, 날보고 살라고 하오...)" 이에 이모제네의 "Tuto ad un cor possibile (명예를 지키는 마음에는 그것이 가능하지요...)"의 권위 있고 따뜻한 응답송이 따른다. 너무나 아름다운 멜로디이다. 이어 똑같은 곡조로 분격에 찬 공작의 '이 나쁜 작자들'의 노래가 따르고 두 연인은 또 제각기의 생각을 같은 멜로디로 곧 뒤로 따라 부르면서 결국 아름다운 3 중창이 되어 한참 계속된다. 이모제네의 애타는 간원의 노래는 가슴깊이 파고든다.

공작이 들고 가까이 있는 것을 모르는 둘이 마침내 서로 아픈 작별 인사를 하는 순간 '이것이 마지막인 줄 알아라' 하며 공작이 나선다. 둘이 놀라는 순간 이모제네는 어서 도망하라 하고 공작은 '도망가야 소용없어' 하는데 팔티에로는 '내가 도망? 내가 너를 10년을 찾고 있었다. 자 빨리 같이 나가자' 한다. '차라리 나를 죽여 달라'고 애걸하는 그녀, '마침내 원수 갚을 날이 왔다'라고 서로 으르렁대는 두 남자와의 3 중창이 한참 급격하게 진행하다 분에 찬 두 남자는 결투하러 뛰어 나가고 아델레가 들어와 넘어지려는 이모제네를 부축해 나가는데 막이 내린다.

다음 장면은 공작의 성안의 홀이다. 나팔소리를 신호로 군인들이 들어와 장례행렬로 선다. 모두들 '악덕한 반역자 해적의 손에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이라는 합창을 하고 행렬이 지나가자 망토에 몸을 감춘 팔티에로가 무대로 나와 어둡고 생각에 싸인 표정으로 '걱정들 마시오. 이제 마음대로 하시오' 하며 자기 칼을 던진다. 곧 따뜻한 전주에 이어 고생을 많이

서는 이미 몇 년 전부터 노인용 기저귀 판매량이 애기용을 앞지른다. 기저귀라는 어감 때문인지, 아니면 자존심 때문인지 한국에서는 기저귀 판매실적이 아직 제대로 없다. 멀지 않아 한국도 일본처럼 노인용 기저귀를 시장에 내놓을 전망이다. 그러나 기저귀 차고 웃을 수 있는 노인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한편, 한국의 장수지역으로 알려진 제주도 어느 섬마을에서는 '1908년생' 주민등록증을 자랑스럽게 들고 증손자 결혼식에 축의금을 전달하는 행복한 할머니의 모습을 어느 TV 뉴스에서 소개하였다. 백수를 넘긴 할머니의 축의금이야 말로 진짜 '체면유지비'가 아닌가!



시킨 이모제네에게 용서를 해달라고 한다. 자 재판이 준비되었으니 와서 자기번호를 해보라 하는 합창에 "Ma non fia sempre odita (나에게 대한 기억이 나쁘겠지만 나도 몹시 불행했었소...)" 하고 주위의 모두가 그를 저주하는 가운데 막이 내린다. 아름다운 테너의 아리아 이다.

다음 장면은 유명한 광란의 장면이다. 어두운 음조의 전주가 나오다가 다음에는 애조(哀調)에 뜨인 오보에와 하프가 주로 된 전주가 나온다. 참 인상적인 전주이다. 그러는 동안 아들의 손을 잡고 걸어 나오는 이모제네는 이미 정신착란이 된 상태이다.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무언가를 찾고 있다. 기쁜 표정인가 하면 곧 우울한 얼굴이 된다. 어린 아들이 위로하나 그녀는 이미 아들의 말을 못 듣는다. 아델레가 들어오자 아들이 뛰어가 안기며 엄마를 보라고 하나 시녀는 울면서 이모제네는 이미 제 정신이 아닌 것을 알고서 조금 뒤로 물러선다.

다시 어두움을 상징하는 듯 한 전주로 계속하다가 이윽고 이모제네가 "Oh! Sio potessi dissipar le nubi(아! 나를 억누르는 저 구름을 거둘 수만 있었으면... 아 저기 아무도 없는 해변에 부상당한 군인이... 오 팔티에로가 아니야... 아 에르네스토... 그이가 아들을 찾아... 어서 아가를 아빠께...)" 하여 아들을 그녀에게로 데려온다.

잠시 플루트의 다사로운 간주가 있은 후 "Col sorriso d'innocenza(네 순결한 미소와 사랑으로 네 아빠께 가서 말해다오... 엄마를 용서하라고...)" 하다가 팔티에로를 재판하고 있는 재판소에서 비조(悲調)의 나팔소리가 나자 깜짝 놀라는데 주위에서 그가 사형언도를 받았다고 하자 이모제네는 다시 '팔티에로, 위험하니 빨리 도망해요... 벌써 교수대를 세우고...' 하니 시녀들이 어서 거실로 돌아가시자고 권하는데 다시 '오 태양이 저 도끼가 안보이게 어둡게 해주소서... 나는 두려움으로... 아! 저 교수대!...' 하며 쓰러지는데 막이 내린다. 중간의 응답 송과 합해서 12분 이 걸리는 대단한 장면이다.

교양(敎養)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종종 가볍게 입에 올리는 말이다. 길바닥에 가래를 뱉든가 코푼 종이를 아무데나 버리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교양이 없다'고 흔히 말 한다. 그런 경우에는 공중도덕이 없거나, 매너가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한 표현일 것이다. 매너는 공중도덕을 지키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이다. 반면 교양은 어디까지나 본인 자신에 국한된 일로, 엄밀한 뜻에서 교양인이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가르치고 보살피 자라게 한 사람'이라는 뜻인데, 그 말은 곰곰이 따져보자면 대단히 어렵고, 그 속에 심오한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럼 교양이라는 말을 간단히 정의해 보자면, 사람의 인격적인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知, intellect) 정(情, feeling) 의(意, will)의 수련이라고 할 수 있다. 지, 정, 의, 라는 말이 나왔으니, 존경하는 일본의 으뜸가는 교양인 하복수석(夏目漱石)이 쓴 草枕의 冒頭に 나오는 유명한 절구(絶句)가 생각난다. "知に?けは角が立つ 情に棹させば 流される 意地を通せば窮屈だ。 兎角に人の世は住みにくい" 이 말을 풀이하자면 지식의 힘으로 밀어부치면 모가 나서, 사람들이 싫어하고, 그렇다고 인정을 너머타면 떠내려가 비참해진다. 자기 의지만 고집하면 사람들과 맞서 충돌하게 된다. 어떻게 해도 살기 힘든 것이 사람 사는 세상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잘 조화해서 처세하는 것이 교양인의 지혜라고 할 수 있다.

한때에는 일본 천 엔(圓짜리 지폐) 紙幣에 夏目漱石 초상이 오르다가 하면, 한국의 천 원짜리 지폐는 조선의 주자학을 완성한 이퇴계의 초상이 실렸다. 지폐인물은 대체로 과거의 정치, 사상, 문예, 독립운동은 물론 한국의 국위를 선양하는데 공헌한 위대한 인물이나 또 선망의 대상으로 모범이 될 만한(role model) 교양인을 엄선 끝에 선정되는데, 장차 한국의 슈퍼이치로 알려진 故 장기려 박사는 이다음 순위에 불만이 올랐다고 한다. 그 다음에는 고 유한철 씨가 있게 되었고, 후속으로는 이해원 교수가 이어져야 하지만, 이름 석 자 앞에 고(故)자가 붙어야 하는 것이 관례가 되어서, 공연히 인생의 정점에서 바야흐로 맹위를 떨치고 있는 그 분을 일찍이 유명을 달리 하라고 재촉하는 듯해서, 입빠른 소리를 삼가 하겠다.

남존여비 사회인 한국에서, 유학자 울곡을 키워내고, 그를 9번씩이나 장원급제시킨 위대한 어머니 신사임당 초상이 한 동안 여러 말쑥 끝에 겨우 선정 되어 5만원 지폐에 올랐다. 그런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사회에서 극히 제한된 지면도(知面度)를 가진 사람으로서 그제 그리 쉬운 일이겠는가 만사도 사설 그제 응당 그럴 만하다는 말이라도 해 두려고 해서, ad balloon이나 따우는 것이니, 미지수의 속제로 남기고 당장 심각한 문제는 아니다.

일반적으로 한 인간이 가져야 할 여러 분야에 걸친 지식이나 상식은 말할 것도 없고, 거기에 더해서 고전문학이나 예술 등 한 차원 높은 문화에 대한 폭 넓고 깊은 조예로 인하여 품위나 인격이 더욱 향상된 상태를 교양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 결과로 사물에 대한 이해력, 창조력, 통찰력, 판단력, 문장력 웅변력 등에 두루 연관되어, 그 사람의 품격이 가일층 높아져 있는 상태를 말 한다. 달리 말하면 아무리 풍부한 지식을 자랑하는 학자일지라도 그의 박식함이 참된 인간다운 품성이 가미되어 있지 않으면, 그는 교양인이라 할 수 없고, 잡다한 정보만을 잔뜩 수집한 평범한 인테리나 지식인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이다.

그러기 위해서 일반지식이나 전문지식 이외에 문화이상(文化理想)을 위한 정신적 능력의 개발과 수양을 항상 염두에 두어 노력해야 한다. 문화이상이란 진리를 탐구하고 끊임없이 진보하고 향상 하려는 인간의 정신적 인 활동과 노력인 교양(culture)을 뜻하는 말이다. 반면 물질적 성과에 무게를

교양이 확립 되었다. 그러나 그 후 과학과 기술의 우위가 결정적인 현대에서는 이것과는 다른 새로운 유형의 교양이 요구되기 시작했다. 근대의 문화주의사상의 경향은 독일의 이상주의 철학의 큰 영향에서 생겨난 것으로, 물질적 실리적인 문명에 대신에, 정신적 가치의 문화에 중점을 두었음

## 교양인(敎養人)들

김 경 태(55, 펜실바니아)



은 것을 문명(civilization)이라고 한다.

영어로 Culture는 문화, 혹은 교양이라는 의미이고, men of culture나 well educated men 이라고 하면 교양인을 말한다. 원래의 어원은 Latin어에서 땅을 갈아 농사를 짓고 손질하는 경작(cultivation)한다는 뜻으로, 그렇게 농작물을 거두어 드릴 때는 땅을 흘려가며 열심히 일해야 하는, 성실하고 부지런한 근면성을 가져야 한다. 또 독일어에서는 culture는 bildung 라는 말로, 영어의 build처럼 형성 한다는 뜻으로, 그것은 인간정신을 개발하여 풍부하게 만들고, 완전한 인격을 형성해 가려고 노력하는 교양이나 수양의 뜻이 포함되어 있다.

Culture인 문화는 진리를 추구하고 끊임없이 진보향상 하려는 인간의 정신적 수양으로, 몸과 마음을 달련함으로 고귀한 인간의 됬됨이나 도덕심 따위를 높은 경지로 끌어 올리려고 하는 노력을 말 한다. 그래서 교양이라고 하면, 학문과 지식뿐만 아니라, 그 외에 더해서 사람으로서 갖추어야 할 어진 덕과, 온후한 인간다운 맛인 인간미, 즉 human touch에 넘치는 성품이나 선비다운 풍채를 말한다. 즉 전문가적 학식과 직업생활 외에 일정한 문화이상을 좇아서 따르는 정신적 능력의 끊임없는 개발로, 능숙하고 다듬어진 세련미(polished refinement)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의 참 됬됨이 라는 것은 대체로 어떠한 요소로 성립되어 있는가, 그것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인간다운 본질 즉 사람으로서의 품격을 말한다. 그것은 어질고 너그러운 덕성으로, 인간 본연의 타고난 마음씨에서 우리나라는 행위인 덕행으로 나타난다.

다음 덕성에 준해서 중요한 것은 관습이다. 그것은 어느 일정한 사회 내부에서 오랫동안 지켜 내려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습관화되어온 마땅히 따르고 지켜야 할 규범이다. 그래서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을 가지는 것으로 인해서 인간 자체가 변할 수 있다. 해서 첫째가 덕성, 두 번째가 천성인 습관, 세 번째가 지성과 기능을 꼽을 수가 있다.

인간의 뇌의 노화현상으로 그동안 저축해둔 지식들은 조만간 하나 둘 사라져 없어지게 되어있다. 그러나 그런 지식들이 교양을 동반하지 못한 사람들은 지식의 저장고가 없어지는 날에는 초라한 식물인간으로 전락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노후에 언젠가 머리가 공백 상태가 되어도 평시에 항상 교양을 배양한 노인들은 건망증으로 지식이 사라져도 남아있는 교양을 지닌 채 품위와 존엄성을 간직한 채 여유 있게 여생을 보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교양은 어떤 사회의 공통된 가치관에 따라 존재함으로, 시대와 사회의 변천에 따라 그 내용도 달라 질수 있다. 유럽 문화권에서는 헬레니즘을 거쳐, 중세에 들어와서는 로마 시대에 형성된 인문주의(humanism)의 이상을 일으키려는 그리스도교라는 새로운

으로, 교양에도 그러한 의미가 들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실리주의적, 입신출세적, 정치적인 것을 떠나서, 오늘날의 교양은 내면적 비(非)정치적인 인격주의가 내포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중세기 절대군주 시절의 유럽의 전통적 교양은, 궁정(宮廷)을 중심으로 귀족이나 상류계급 사이의 사교계에서 세련된 매너와 회화(會話)를 즐기는 능력과 그것에 필요한 지식과 문화적 소양이었다. 한편 동양에서는 사서오경이나 달달 외우고, 한시(漢詩)나 읊조리는 유교적인 양반계급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었다.

여기에 18세기 유럽을 단연코 대표하는 교양인 괴테(1749-1832)를 소개하게 되는 이유는, 과연 그가 당대의 교양인으로서 본보기가 될 만한 표본적인 인물이었다. 그는 질풍노도 시대(Storm and Dranger Liter, Writer of the Storm and Stress period)를 대표하는 작가로, 당시 심한 난청으로 신경이 몹시 날카롭고, 무례분방한 Beethoven(1770-1827)과 처음이자 마지막의(1812-7-19) 만남은 이를 만에 폭발하듯이 깨어지고 단호히 결별하고 말았다. 원래 그들의 만남은 베토벤이 괴테의 원작 Egmont를 위하여 Egmont Overture 를 관현악 곡으로 작곡한 것이 3년 전 1809년 일로, 서로 만나서 Egmont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한 것이었다. 1000년에 겨우 하나 날까말까한 신(神)이 지상 우리에게 내린 대약성과 중세기 최고의 교양인의 회우는 그렇게 허무하게 끝나고 말았다.

근세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유한철(1917-1980)씨는 한국의 으뜸가는 교양인으로, 그의 어머니는 문교부 장관과 서울대학교 총장을 역임했던 최규남 박사의 누님이시다. 그는 1941년 약관 24세에 의전을 졸업하고 한때 이비인후과 의사로 의료계에 종사했다. 6-25사변 직후 일본에 가서 선전교양이념에 접한 그는, 5년 후에 귀국해서, 의업을 접고 영화, 음악, 연극, 특히 영화, 오페라 평론가로 변신했다. 그의 지론은 오페라는 음악을 아는 연출가가 맡아야 한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또 학창시절부터 아이스하키 선수였던 그는 아이스하키향회 회장으로 활동하며, KOC 올림픽 위원이기도 했다. 그것뿐만이 그는 시나리오 작가로서 많은 걸작을 남겼고, 직접 영화제작에도 관여했다. 그는 의학 외에 문학, 극작가, 시나리오 작가, 영화와 음악 평론 체육인 등 다방면에 다재다능한 분이셨다. 그래서 그의 활동분야가 너무나 크고 왕성하여 팔방미인이라는 별명이 붙어 다녔다. 그 수준이 워낙 높아, 아마추어가 아닌 프로들도 뺄 정도로 여러 방면에 탁월했다. 호주재담(豪酒才談)을 잘 하는 낙천주의적 생활 때문에 그의 주위에는 친구가 많았다. 1960년부터 한국에 일기 시작한 흑백 TV에 자주 노출된 그의 풍모와 재담은 시청자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 매료시켜, 단연코 인기 절정을 달린 적이 있다. 1980년 가을, 스카라 극장 앞에서 불의의 버스사고

로 한참 일 할 나이인 62세를 일기로 화려한 생을 못 다하고 그만 요절하고 말았다. 그가 떠난 지난 30년간, 그가 비운 텅 빈 공석은 아직도 비어있는 채 남아있어, 그 공허함을 금치 못하는 애절한 심정 어디 나 뿐의 일 이겠는가.

여기에 유한철 씨와 여러 가지 면에서 상통하는 교양인인 이해원(이하 H.W.) 동문을 소개 하게 되는 것은, 그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탁월한 전문성을 들기 전에 교양인으로서의 본디 그대로의 모습과 재능이 너무나도 유사한 점이 많다는 것을 들지 않을 수가 없다. 특히 그 두 분의 오페라와 영화 평론 대담 분위기를 가상만 해 보아도 마음이 설레이는 일이다.

H.W.는 희로애락의 복잡한 정서적 감정을 통해서, 온화하고 고상하고 원만한 인품을 가진 예술적 소양을 풍부하게 밑거름 삼아 인격형성의 토양을 다졌다. 해서 그는 편협된 교육에 치우치지 않고, 知, 情, 意의 종합적인 소양을 잘 조화해 닦음으로, 완전한 전인적 인격을 지향하는 면학의 길을 택했다. 그는 어질고 너그러운 덕성과 강인한 의지를 키움으로, 진취적인 성품을 갖추 수 있게 종합적인 전인교육, 즉 all around 한 성격교육과 정서교육에 치중하게 되었다. 강인한 의지라는 것은 집착이나 집념이 강하다는 것으로, 뚜렷한 목표에 대한 성취욕이 남달리 강하다는 뜻이다.

청운지지(靑雲之志)라 하면 보통 공을 세워 입신출세 하려는 야망인데, H.W.의 경우는 덕을 닦아 훌륭한 일을 하려는, 사(私)보다 공(公)을 앞세운 인물이 되려는 대망이었을 것이다. 그럴수록 그 의지는 더욱 강한 신념과 용기를 동반하고, 진취적으로 될 수밖에 없었다. 성공은 지능이 아니라 성격과 기회포착(take chance) 능력에 좌우된다. 자신의 성공을 행운 탓으로만 돌리는 그의 낮은 말투는 잘난 체하지 않고 겸허하고 아름다운 가목한 미덕에서 나왔으리라.

한 가지 일에 매달려 정신을 쏟는 집념이 강하다는 것은, 이루려는 뚜렷한 목표에 대해 꼭 이루어야 할 중요한 일이라면 이루고야 마는 성취욕이 강하다는 뜻으로, 대개 뇌 중추 neuro-transmitter의 dopamin 수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그 작용이 유별나게 향진되어 있는 H.W.같은 완벽주의적인 사람의 경우가 많다.

마지막으로 그가 많은 하버드 출신 의대 졸업생을 제치고, 하버드 수련 과정에 선발 되었다는 사실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었다. 그러나 하버드 대학에 선발 기준을 익히 안다면, 그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고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achievement scores, 학력성적을 50%, 나머지 50%는 전인적 인품을 중요시 하는, 하버드형(型) 인물의 본보기나 틀에 맞아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다음은 '하버드 인생'이란 제하로 나온 통계에 의하면, 외적인 모습에는 누가 보더라도 그들은 미국에서 최고 엘리트답게 여러 명의 대통령과 많은 유명인사들을 많이 배출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졸업생 중에 30년 지난 뒤에는, 그 중에 3분의 1이나 정신질환자가 되어 버렸다는 보고였다. "기쁨과 비탄은 섬세하게 짜여져 있다"라는 William Brake의 시구를 인용해 연구의 결과를 마무리 지었다. 모든 인생은 그 바탕이 달라 출발은 다를지 몰라도 시간이 흐를수록, 외적인 조건과는 상관없이 본질적인 문제 앞에선, 그들도 다른 사람과 별 다를 바 없이 공통된 원리가 적용 된다. 그것은 첫째로 인간관계라는 것이었다.

인생이란 과학이라는 잣대로는 밝힐 수 없는 미묘하고 복잡한 일들이 많지만, 성공적인 <다음면에 계속>

# 템프라니요 와인에 대한 잡소리

이 권 일(68, 오하이오)



Cuenca Cathedral & Parador

Rioja 와인은 대개 Grenacha 포도로 만든 것인데 이것도 좋은 것은 아주 좋지요. (인생 만사가 다 그런 것처럼) 그러나 우리가 흔히 구할 수 있는 저가의 리오하는 엉터리로 또는 무성의 하게 잘 못 만들어진 것이 많아서 그 명성에 걸맞은 맛을 못 느끼고 실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구할 수 있는 Rioja 중에서 Torre Muga Reserva 정도는 아주 좋은데 옛날에 \$50 하던 것이 \$75-80 이상으로 값이 올라서 요즘은 마셔보지 못했습니다.

이 바로네스 5세는 템프라니요 포도로 빚은 것이라 Cabernet sauvignon에 비해 덜 무겁고 좀 부드러우면서도 한참 있다 강렬



한 인상을 줍니다.

Cab, 처럼 나 여기 있소 하며 처음부터 달려드는 그런 뻔뻔함이 없어요. 마치 충청도 양반 댁 규수가 수줍어 하며 차려 놓는 정갈하고 맛깔스런 상차림 이라고 할까?

그런데 대부분의 와인 안내 정보에 이 지역 La Mancha에서는 좋은 red가 안나온다고 해서 와인 리스트를 보면 서 두 번째로 비싼데 이 술을 (35 유로) 시키면서도 속으로는 역시 별 일 없을 거야 하면서 반쯤은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져온 병을 보니 그 생각새부터가 범상치 않더군요. 아하, 가슴이 약간 뛰기 시작합니다. 콜크를 빼어 주는데 보니 아주 질 좋은 콜크를 썼군요.

와인 질과 콜크의 품질은 정비례

한다고 나는 굳게 믿습니다. (New Zealand/Australia 산 와인 빼고) 와인을 성의 없게 싸구려로 만들어 대량으로 팔아먹는 자들이 좋은 콜크 쓰리가 없을 겁니다. 대개 합성 마개나 screw-top 쓰겠지요.

콜크 질을 보니 내가 크게 잘못하지는 않았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어 나에게 시음을 시키는데 우선 냄새 (유식한 말로 Bouquet, Nose etc.)부터 은근한 게 좋더군요. 이어 한 모금 물고 입속에서 굴리고 넘기니 술술 잘 넘어 갑니다.

그러니 술이지요, 맛아요?

잘 넘어 가는 것을 유식한 말로 finish 라고 하는데 이것이 부드럽게 술 같이 술술 잘 넘어 가게 하는 것이 좋은 와인인 것이지 그렇지 않은 것 사이의 큰 차이입니다. 좋지 않은 와인이 부드럽게 넘어 가는 것 한 번도 경험한적 없습니다. 또 그것 때문에 천문학적(?)인 돈을 쓰는 것 아닌가요?

웨이터가 자꾸 미소를 지으며 와인을 디캔터에 따를까하고 묻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이 자가 왜 실업게 자꾸 웃어 하며 그러라고 'Si, si' 하고 대답 했습니다.

각자의 잔에 조금씩 따라 주는 것을 받아 다시 정식으로 맛을 보았습니다. 여태까지 마셔본 Tempranillo 와인 중 제일 좋은 맛인 것 같았습니다.

이 와인 하나로 오늘 여기 꾸엔카에 온 것은 본전을 찾은 것이고, 아니,

아마도 이번 마드리드 행은 본전 이상 찾은 것 같다는 생각이 불쑥 들더군요. 와인에 미치다 보면 모든 여행의 성과는 좋은 와인을 발견 했느냐 못했느냐에 따라 결정이 납니다.

친구인 닥터 로가 와인 맛이 어때? 하기에, 아주 좋아 평효야, 무이 비엔하고 웃었더니 나중에 자기가 인터넷에 올린 글에 이 아무개가 이날 기분 좋게 즐겼다 라고 썼더군요.

우리 일행 중 와인 마시는 사람은 나 밖에 없으니 웨이터 보고 그 이상 다른 사람 잔에는 따르지 말고 나한테만 부으라고 하였습니다. 좋은 와인이 남아서 버리게 되는 일처럼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1/2 병쯤은 마시게 되었지요.

나중에 시킨 새끼양 팔 구이와 아주 좋은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나올 때쯤 그 웨이터가 이 와인이 자기 고향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이야기 하기에 앞서 그가 왜 자꾸 실실 웃었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 촌스럽게 생긴 동양인이 자기 고향 와인을 시키니 안 웃고 배기겠습니까?

Vino, muy muy bueno, gracias! 했더니 다시 웃더군요. 한마디로 기분 좋게 좋은 날이었습니. 출고 우중충한 날 친구 부부 데리고 기차 타고 처음 온 곳인데 경치 좋고 음식 좋은 데 거기에 와인 까지 좋았으니 아주 행복한 꾸엔카 여행이었습니다.

<전면에서 계속> 미래로 이끄는 열쇠는 지성이나 계급이 아니라, 인간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었다.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소위 실패했다는 사람들은 전문적 기술이 부족하기 보다는 대부분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본인 자신들이 잘 깨닫고 있을 것이다.

우리들이 살아 가는데 타인과의 관계의 테두리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은, 인생에서는 어느 한두 가지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조화가 이루어 져야 하는데, 그 최상의 상태가 바로 인간관계라는 것이다. 그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한 마디로 남을 배려하고 이해해주고 또 인정해 주는 사람이다. 또 인간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대화술 이라고 할 수 있다. 말 잘 한다는 것은 우선 남의 말을 잘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일방적으로 자기의 말만 시끄러는 사람은 자기가 아는 지식을 남에게 너머 강요 하는 것으로, 듣는 사람을 싫증나게 하고 불쾌하기까지 하는 경우가 많다. 대화를 할 때도 자기 이야기는 최대한 짧게 하고, 상대방에 항상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이 하는 말에는 맞장구를 쳐줌으로 서로가 하나가 될 수 있게 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대화의 묘미를 알고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이끄는 사람이다.

연구대상자 3분의 1은 정신질환을 앓았듯이, 그들은 엘리트라는 겉데기 아래서 얼마나 고통을 겪었던 말인가. 하지만, 진정한 천재는 99% 노력과 1%의 재능으로 이루어진다. 결론적으로 인생의 성공이란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 받는 것이다. 나머지는 전부 배경음악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이며, 그 속에서 행복이란, 결국 '사랑' 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Life is B.C.D 라는 말처럼 인생은 태어나서(B) 죽는 순간(D)까지 선택(C)하는 것이다. 바른 선택이란 인생의 목적을 바로 알았을 때 가능한 일이다.

톨스토이는 세 가지를 사랑하라고 했다. 그것은 지금 자기가 하는 일과 지금 만나는 사람 그리고 지금 이 때를 사랑하라고 했다. 지금 현재를 충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이다. 일상적인 인간관계란 나와 이웃에 조화이다. 다

른 사람을 비평하고 비하하면 자기 인격이 떨어진다. 그런 사람을 용서할 수는 있으나, 그가 뱉어낸 험담은 쉬 잊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남을 용서 할 수 있듯이, 속 깊이 응어리진 일을 잊어 먹는 일은 더욱 좋은 일이다.

상기한바, 번거롭고 지루한 교양에 관한 글은, H.W. 동문의 빼어나게 높은 교양인으로서의 인간성을 하나의 체계로 묶어 보기위해, 있는 그대로의 그의 본성을 열거하거나 기록하기 보다는, 교양에 대한 공통적인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 남들이 가게 서술하다 보니, 글의 앞뒤가 훤히 다소나마 산만하게 조리가 맞지 않은 데가 있을 듯해서 양해를 구하는 바이다. 대체로 타고난 사물의 도리나 이치를 잘 분별하는 H.W.의 정신적 능력으로,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며, 나와 이웃을 조화하고, 자-정-의를 조화하며 지내온 그의 절묘한 처세술은 시기할 정도로 부러울 따름이다.

문화는 보편적인 가치에 의해서 이끌어낸 이상화(理想化)된 궁극적 자기 완성을 목표로 삼고 있다. 그런데 교양이라고 하면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 여정에서 목적을 달성 할 때 까지 추구해야하는 일생 동안에 걸쳐서 한 없이 해결해야할 문제임으로, 최후까지 완주해도 도저히 도달 할 수 없는 높은 나무 일런지 모른다. 그래서 아무리 완벽주의라고는 하지만, 인간인 이상 완벽한 조화라는 것은 궁극적인 문화이상과 같은 공상적인 것으로, 죽기 전에는 미치지 못할 목표일 것이다. 이 글 머리에 교양인이란 지, 정, 의를 잘 조화해 간 사람이라고 정의 했지만, 그것은 너머 판에 박힌 듯한 공식화된 정의여서, 좀 융통성 있게 실질적으로 여유를 두고 다시 생각해 볼 문제이다.

술직히 말해서 팔순을 바라보는 노인장예, 한 인간의 노력으로 知, 情, 意를 어느 정도 잘 조화해 왔다고는 하지만, 그런 과정에서 다소나마 격차가 생기는 것은 인지상정 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긴 타향살이를 하다 보면 어쩐지 정에 약해지고, 반면 험하고 어려운 세과를 극복해 나갈 여면 강한 의지로 대처해 나가지 않으면 생존할 수가 없다. 말하자면 다년간 의료나 사회봉사에 전념하다 보면 정

에 약해 질 수밖에 없다. 한편 간염과 간암에 대한 연구와 의료실적으로,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제퍼슨 의과대학 간염-간암 예방센터의 책임자와 내과 정교수 직을 맡아왔다는 사실은, 보통 의지를 가지고서는 어떻게 이루어 낼 수 있는 일이었느냐.

전인적인 교양인이라고 하면 공연히 격이 여러 층 높은 사람처럼 들려서 거리감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H.W.는 워낙 남을 헤아리고 동정심이 깊은 서민적인 사람이다. 오히려 세속적인 재물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소탈한 편이다. 본래 훌륭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사랑하고, 누구도 그를 허물없이 마음 놓고 대하고, 무슨 말이라도 털어 놓을 수 있는 조연자로 처세 하고 있다.

다른 사람의 감정에 헤치고 들어갈 수 있는 따스한 동정심, 소위 말하는 감정이입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오페라 속에서 자신의 감정으로 정신을 불어 넣어, 자기와 등장인물이 서로 통하고 일치한다고 느끼는 심리 작용을 말하는 것으로, 눈물까지 흘리게 되는 것은 감정이입의 좋은 표현이다. 그것은 무대 위에 등장인물이나 일상 사회 생활에서 볼 수 있는 딱한 사람들에게 자기 기분을 겹쳐서, 그들이 바로 자기라는 기분이 되어, 마치 자신이 그 스토리 안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심리상태를 말 한다. 따라서 필라여성회에는 인생 상담소가 생기고, 딱한 사람들과 일심동체가 되어 어려운 처지를 나누려고 하는 것이다. 감정이입(empathy)라는 것은, 남의 어

## 의과대학 졸업 50주년 기념

김택수 (63, 네바다)

히포크라테스 선서 목청 높이 울고  
의대 교정 떠난지 어언 반백년  
백발의 칠십중반 자축할만한 일로다  
우선 그간 유명을 달리한 급우들의 명복을 비는 바이며  
명익이 됐든 양익이 됐든  
그 큰 포부를 성취한 정성과 노력에  
성원과 찬사를 아끼지 않는 바이며  
칠십고개 넘었으니  
세월은 손살같이 가겠지만  
가는 세월 가라하고  
남은 세월일랑  
깨가 쏟아 지듯이 재미있게 살지어다



려움을 딱하고 가엽게 여기는 동정심을 넘어, 실제로 딱한 상대자와 같은 한 몸이 되어 고통을 나누는 것으로, 남의 일에 대해서 느끼는 동정심 같은 것에 비해 자기 자신의 일 같은 피할 수 없는 절박한 심정을 말 하는 것이다.

글을 맺으며, H.W.에 대한 글은 지난 20년 동안 쓸려고 마음먹은 숙제인 채 미루어 왔다. 표면에 나타난 그의 자취나 자국에 대해서는 이미 지면에 여러 번 실린 바가 있어, 새삼스럽게 되풀이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해서 초점을 거꾸로 돌려서, 그가 이론 흔적으로 미루어 보아, 그 일의 진행하는 발전과정에서 그의 원숙한 교양인으로서의 소양이 어떻게 그런 훌륭한 성취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그러다 보니 결국 교양인이라는 제목에 압축되어 귀결지워 버릴 수밖에 없었다.

# 회비, 후원하신 동문

2013년 7월 20일 ~ 2013년 10월 15일

- 1948 한용현
- 1951 오정희 이상하
- 1953 강수상 이상봉
- 1955 노용면 박병원
- 1957 강영섭 박건호 박종식 이동성 임종식 정진묵
- 1958 김기태 김석희 김수산 김시한 노인규 박용화 이민자 이종국 이동립 이상설 이만택 이운순
- 1959 강재룡 강상진 김병구 김병석 김한섭 방식운 서경화 신영철 최용천 최해숙
- 1960 김완주 김택경 김영환 박춘명 이순환 이덕승 이상일 임종원
- 1961 강창욱 고의걸 김영기 김영철 박준환 손기용 안창현 양명교 이재두 이희경 황현상
- 1962 구정용 권익현 김한중 송영두 손영진 정정수 조명호 이영웅 이상무 이석우 오태요 최영수
- 1963 고영희 김계운 김정일 김갑중 김승태 김주용 김태웅 김택수 권영재 노인규 마동일 박승균 서경석 선종철 신영규 양찬기 왕규현 윤영섭 이기환 이승현 이범세 장세곤 정관호 조열하 조한원 한광수
- 1964 김용두 김원영 유효명 유 강 유창남 임병훈 이종오 이종성 전희택 정유석 조동준 조성준 한태진 허선행 홍선경 홍준표 최준희
- 1965 구경희 민경탁 박수안 서좌일 손광호 조성구 이정희 지영환 이범석 홍수웅 채도경
- 1966 김의신 김충규 민발식 장한교 황 철
- 1967 김성철 문경용 박정일 유진일 이정화 이소희
- 1968 김 철 박정식 서은석 송창호 유우영 이대용 임공세 안세현 최 철
- 1969 김중권 김흥서 도상철 송용재 안병일 엄규동 임응규
- 1970 조영갑 최원일
- 1971 고기영 김일영 김창구 노재홍 배성호 서정자 정인용 조세진 황동하
- 1972 김현배 김재석 이기진 정희현

- 1973 나두섭 민인기 서인석 심완섭 임준형
- 1974 권철수 이흥제 이지현
- 1977 강준희
- 1992 조형기
- 1975 김자억 전경배
- 1982 차민영
- 1999 박성철

### 32th Convention Donation

손영진(62) 75 허선행(64) 200 김성환(71)10000 김창구(71) 375 배성호(71) 300 서인석(73) 500 임준형(73) 100

### General Donation

오정희(51) 125 노용면(55) 500 김익창(56) 100 서상철(56) 25 강창욱(61) 125 최영수(62) 100 김계운(63) 75 이범세(63) 50 김성철(67) 75 임준형(73) 100

### Scholarship Fund

강상진(59) 300 황현상(61) 100 서정자(71) 200 임준형(73) 100 김자억(75) 500

### Charity

노인규(63) 75 홍선경(64) 100 민인기(73) 100 임준형(73) 100

### Green Project

김한중(62) 100 민발식(66) 100 조세진(71) 150 서인석(73) 100 임준형(73) 100

### Member Directory Fund

박근수(49) 나수섭(50) 이상하(51) 노용면(55) 김신형(56) 차봉희(57) 임종원(57) 김양호(57) 정구영(57) 유상환(57) 임영신(58) 이운순(58) 송세엽(58) 김윤범(58) 김은섭(59) 최해숙(59) 김병구(59) 정태진(59) 이교락(59) 김용덕(59) 이순환(60) 박춘명(60) 박명근(60) 열극용(60) 우병혁(60) 이종석(60) 최지원(61) 장성환(61) 황현상(61) 최태순(61) 진찬건(61) 강창욱(61) 김유홍(61) 민경환(62) 윤홍철(62) 이기범(62) 이태봉(62) 김한중(62) 하상태(63) 한광수(63) 권영조(63) 김현철(63) 장세곤(63) 김태형(63) 이범세(63) 송용덕(63) 이흥표(64) 허선행(64) 양운택(64) 권정덕(64) 홍선경(64) 전희택(64) 이한중(65) 채도경(65) 이재진(65) 이한승(65) 장한교(66) 정양수(66) 이소희(67) 한영수(67) 서진석(68) 서은석(68) 서관우(68) 차재철(68) 최 철(68) 변영석(69) 이용환(69) 윤희운(69) 이승공(69) 방준재(70) 이성길(71) 오동환(71) 김창구(71) 김성환(71) 김유식(71) 조세진(71) 정진우(72) 오용호(72) 서인석(73) 임준형(73) 오인환(73) 권철수(74) 박인영(75) 김대중(76) 김승관(76) 김동수(78) 전영식(78)



**서울대학교 도서관의 새로운 도전, 관정도서관 신축과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추진!**

그러나 새로운 도서관은 건물만 지어질 뿐 필요한 책상, 가구 등이 전무합니다. 후배들이 공부하는데 필요한 환경 마련을 위한 기금 모금에 참여해 주십시오. 그 소중한 이름을 가구와 공간에 새겨드립니다. 반기문 UN 사무총장님도 동참해 주셔서 그룹스터디룸 가운데 '반기문룸'이 만들어집니다.

| 종류         | 내역       | 모금액                 |
|------------|----------|---------------------|
| 1. 열람석     | 열람석 의자   | 1백만 원 (\$1,000)     |
|            | 4인 테이블   | 3백만 원 \$3,000       |
|            | 8인 테이블   | 5백만 원 \$5,000       |
| 2. 서가      |          | 5백만 원 (\$5,000)     |
| 3. 멀티미디어실  | 멀티미디어 세트 | 5백만 원 (\$5,000)     |
| 4. 개인캐펄    | 개인용 60실  | 1천만 원 \$10,000      |
|            | 6인용 40실  | 5천만 원 (\$50,000)    |
| 5. 그룹스터디룸  | 10인용 10실 | 1억 원 (\$100,000)    |
|            | 30석 규모   | 2억 원 (\$200,000)    |
|            | 60석규모    | 3억 원 (\$300,000)    |
| 7. 컴퍼런스룸   | 100석 규모  | 10억 원 (\$1,000,000) |
| 4. 패컬티 라운지 |          | 10억 원 (\$1,000,000) |



기금모금에 대한 문의사항은 수신자 부담으로 전화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서울대미주재단 T. 212-768-9144 F. 212-768-4494 kenneth@klcpagroup.com / america@snu.ac.kr  
 서울대도서관 기획홍보팀 T. 822-280-9375 F. 822-885-8977 llbplan@snu.ac.kr http://friends.snu.ac.kr

## 서울대학교 발전기금(도서관 시설환경개선 기금) 참여 신청서

Seoul National University Foundation (Renovation Fund for Library Facility) Donation Application Form

**인적사항**

|                  |           |      |           |
|------------------|-----------|------|-----------|
| 성명 [회사(단체)명/대표자] |           |      |           |
| 생년월일             | 년         | 월    | 일 (양 / 음) |
| 동문정보             | 학부(과)     | 입학년도 |           |
| 연락처              | 우편물 수령 주소 | 이메일  |           |
|                  |           | 전화   |           |

**약정정보**

|  |   |                |
|--|---|----------------|
| 약정금액   | 일금 (\$ )  |                |
|  | <input type="checkbox"/> 일시납                    | 년 월 일          |
|  | <input type="checkbox"/> 분할납                    | 년 월 일 ( ) 회 분납 |
| 희망사용처  | <input type="checkbox"/> 기관에 위임 [도서관 시설환경개선 기금] |                |
| 기부금 원금을 보존하여 발생하는 이자(과실금)로 지원하는 것을 원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네(원금 보존) <input type="checkbox"/> 아니오(원금사용) |   |                |

**납부방법**

|                                 |   |
|---------------------------------|---|
| <input type="checkbox"/> 무통장 입금 | Bank: Shinhan Bank, Little Neck Br.<br>Account No.: 115-6-000805 (Routing No.: 02611963)<br>Address: 252-20 Northern Blvd., Little Neck, NY 11362                                   |
| <input type="checkbox"/> 신용카드   | Holder Name: (signature)<br>Card Type: <input type="checkbox"/> Visa <input type="checkbox"/> Master Card <input type="checkbox"/> American Express<br>Card #: Exp. Date: / / CVC # |
| <input type="checkbox"/> 수표     | Bank Name: Account No.: Depositor:  |

서울대학교 도서관 시설환경개선을 위한 발전기금 조성에 참여하고자 위와같이 출연할것을 약정합니다.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SE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약칭인 (서명) 년 월 일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ALUMNI ASSOCIATION OF NORTH AMERICA**  
 P.O.Box 631, Port Washington, NY 11050  
 Tel: (516) 365-5500 Fax: (516) 365-5501  
 snucmaa@yahoo.com www.snucmaa.us